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

201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연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

강혜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연해

인준서

이연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한국어는 어느 언어보다 대우표현이 발달하였으며, 또 한국어의 실현에 대우표현이 긴밀히 붙어있어 한국어를 목표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반드시 대우표현을 학습하여야 한다. 또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문법형태소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많은 대우표현이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대우표현을 실현할 때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런 오류들을 최소화 하고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원인과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잘 학습하게 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의 용어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대우표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비교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제시되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대우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오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 양상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분석 및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

국어 사용 양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한국어 교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학습현장에서 진행 가능한 교수-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핵심어: 한국어 대우표현, 중국인 학습자, 오류 분석, 개선 방안

목 차

논문개요	i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3
1.3. 선행 연구	4
1.3.1.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4
1.3.2.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6
제2장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양상 비교	10
2.1. 한·중 대우표현의 용어 비교	10
2.1.1. 한국어에서 대우표현을 지시하는 용어	10
2.1.2. 중국어에서 대우표현을 지시하는 용어	13
2.2.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비교	14
2.2.1. 한국어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15
2.2.2. 중국어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21
2.2.3.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비교	25
제3장 중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의 대우표현 내용 분석	28
3.1. 북경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내용 분석	29
3.1.1.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의 제시	32
3.1.2.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문법형태소의 제시	34

3.2. 연세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내용 분석	38
3.2.1.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의 제시	38
3.2.2.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문법형태소의 제시	41
3.3. 북경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비교 분석	44
제4장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대우표현의 사용 조사 및 오류 분석	48
4.1. 조사 내용의 분석 및 오류 판정	49
4.2. 피조사자의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상 오류 분석	52
제5장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	74
5.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대우표현 개선 방안	74
5.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우표현 교수 지도안	85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105
부록	107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¹⁾을 실현하면서 많이 범하는 오류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을 비교해 각각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다. 이후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교재에서의 대우표현의 제시와 기술방법을 분석한다. 다음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양상들을 설문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우표현과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우표현의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한국어 대우표현의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송학성(2000)을 시작으로 허봉자(2008)등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실현하면서 범하는 오류들을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송학성(2000)에서는 한·중 대우표현의 비교와

1) 본고에서는 연구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 대우표현의 경우 문법 형태소에 의한 대우의 실현과 어휘 형태소에 의한 대우의 실현을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대우표현이라는 어휘나 문법체계가 없지만 본고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편리를 위하여 대우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어 대우표현의 경우도 한국어에서와 같이 사용하며, 대우표현의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형태소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또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대우표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통계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오류들을 알아 볼 수 없다. 허봉자(2008)에서는 한·중 대우표현의 체계와 교재 분석 및 설문조사 등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분석하고 연구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여러 교재에서 대우표현의 항목들이 몇 번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교재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의 관련항목과 기술 내용이 학습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볼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대우항목과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오류 분석에 대한 것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고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이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비교하여, 대우표현 실현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에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제시되었는지, 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를 통계를 통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을 기반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제시할 것이며, 제시 내용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장별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1.2. 연구 방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대우표현을 잘 학습하게 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요소와 실현방식을 살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이러한 점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대우표현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둘째, 북경대학교에서 간행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한국어 대우표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분석하되,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이 교재들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의 항목들이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의 항목들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상해 보고 5장에서 제시될 개선 방안에 반영한다.

셋째, 설문지를 작성하여 문항에 답하는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의 대상으로 국어국문학과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선정하기로 한다. 설문자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중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우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다. 대우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한 문항은 특정 발화 상황을 설정한 경우와 설정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며, 설문에서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후 5장의 개선 방안에 반영하였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통한 연구 분석의 결과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안에 반영하며, 또 개선된 교재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의 항목을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교육방법을 교수-지도안을 통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3. 선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송학성(2000), 오미정(2007), 마준정(2008), 허봉자(2008), 범신성(2011), 이명화(2011), 유효영(2012), 우패강(2013), 왕현풍(2014)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와 오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1.3.1.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에 있어서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송학성(2000)에서는 중국내 5개 대학교의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12가지 상황에 대한 사용 양상을 설문 조사하여 오류를 분석하였다. 송학성(2000)은 오류의 양상을 주체대우, 객체대우, 상대대우의 체계 속에서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첫째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인 차이에 의한 오류, 둘째는 대우표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 셋째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류, 넷째는 교재와 교수 학습 방법의 미흡함으로 인한 오류의 네 개 측면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오류의 분석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어떤 오류가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알 수 없어, 제기한 오류의 원인을

조사 결과로 제시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마준정(2008)에서는 대우표현의 오류를 교재의 연습 문제로부터 추출하여 주체대우, 객체대우, 상대대우의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체대우 오류의 원인은 중국어에는 없는 주체대우의 실현요소인 선어말어미 ‘-(으)시-’나, 주격조사 ‘-께서’, 높임 접미사 ‘-님’ 등을 숙지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며, 객체대우는 사회적 변인에 따른 상황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객체대우를 실현하는 어휘형태소들을 잘 습득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또 청자대우는 ‘해라체’는 잘 습득되었지만 ‘해요체’, ‘하오체’, ‘합쇼체’의 세 높임 등급을 똑같은 등급으로 취급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류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분석된 한국어 교재는 출처와 등급단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나타난 오류들이 어떤 오류들인지 또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지에 대한 제시가 없어 논의의 결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허봉자(2008)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대우표현의 오류를 분석하고 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이 논의에서 저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우표현의 양상을 비교하였고, 중국내 여러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오류 관정을 위하여 똑같은 설문내용으로 모어화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또 모어화자들의 학교 문법과 한국에서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대우표현의 제시방법을 살피고, 4종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대우표현들의 기술과, 해당 교재에서 나타나는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항목의 빈도를 점검하여 교재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설문조사는 여러 학교의 학

년별 학습자들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오류 양상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오류 양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오류 판정은 20대의 모어화자들의 발화 방법과 비교하여 판단하였는데²⁾, 특정 연령대의 발화 방식을 한국어 대우표현의 표본으로 삼고 오류 판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리고 교재의 분석에서는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형태소의 사용빈도로 교재의 대우표현의 내용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사용빈도와 교재의 구성이 연관성은 있겠지만 필연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왕현풍(2014)은 전남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등 사회적인 요인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허봉자(2008)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오류를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조사결과를 형식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칭어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말어미 오류, 어휘 오류, 조사 오류, 선어말어미 오류의 순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위자는 높여서 대우해야 한다는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사회적 변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화용론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등급별 교수 지도안을 제시하였으나 오류의 양상까지만 분석하였고, 오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1.3.2.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송학성(2000)에서는 교육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중국학생들에게 한국

2) 허봉자(2008)에서는 오류의 식별기준을 한국어 대우법과 사회문화적 용인 가능성에 두었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변인으로 인하여 한국어의 대우법을 일탈한 경우는 사회문화적 용인 가능성에 맞추어 판정을 하였다고 하였다. (155쪽)

어 대우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우표현의 가치 교육과, 대우표현의 원리를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체대우의 교수-학습방법, 객체대우의 교수-학습방법, 상대대우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나누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각각의 대우 표현을 가르치기 전에 우선 대우표현을 가르치는 순서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교수-학습방법은 주입식 교수법에 학습자들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기’ 단계만 덧붙인 교수방법이어서 기존의 교수방법과 대비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후문옥(200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어휘 교육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특수 어휘는 평어와 쌍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교육 이후 그룹 활동을 통하여 교육하고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교사의 보충 설명으로 마무리 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 특수 어휘들이 실현되는 상황이나 방법을 눈으로 체험하게 한다. 네 번째는 상황 설정을 통한 교육 방법으로 역할극을 통하여 진행된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초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허봉자(2008)에서는 대우표현의 교육 내용과 한국어 교재 구성 방안 및 한국어 대우표현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우표현 교육내용은 주체대우, 객체대우, 상대대우의 삼분체제를 제시하였으며, 오류가 많은 부분은 강조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교재의 구성은 문법 지식의 측면과

언어 사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법 항목은 첫째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먼저 제시해야 하고, 둘째 필수적인 항목을 제시해야 하며, 셋째 응용효과가 큰 항목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상황 설정을 제시하고, 예문으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학습자들의 특성상 ‘제시하고 연습하여 산출하는 PPP 모형’에 의사소통적 과제를 도입하는 교수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대우표현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각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효영(2012)에서는 상대대우표현 중 합쇼체 평서형과 의문형 항목에 대하여 초급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 수업 분량의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경우 교육 방안을 제시할 때 합쇼체를 종결어미로만 제시하였는데, 종결어미에서 합쇼체는 제일 높은 등급의 대우표현이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왕현풍(2014)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담화 상황 제시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중·고급 학습자를 위해서는 역할극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담화의 상황에 따른 교수 방식을 제시하였다.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할극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초급과 중·고급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각각 별도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교수 방법도 기존의 따분한 학습 분위기를 타파하고 학습자들이 직접 학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학습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다른 연구자들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그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교수-학습 방법의 실제에 있어서 ‘제시-연습-산출’의 PPP 모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산출의 방법을 의사소통과 연관 지어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들의 활동으로 진

행되었다. 이상 논의들 중에서 허봉자(2008)를 제외한 다른 논문에서는 단계에 따른 대우표현의 요소들에 대한 제시 방법과 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극히 적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교수-학습의 도구인 교재에 대한 개선 없이, 대우표현의 요소들을 단계에 따라 적절히 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요소들을 적당한 단계의 교재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그 단계에 맞는 교수-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2장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양상 비교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대우표현과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우’표현과 관련된 용어의 문제를 점검하고, 다음은 한국어 대우표현의 실현양상과 중국어 대우표현의 실현양상을 각각 어휘 형태소에 의한 실현과 문법형태소에 의한 실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다.

2.1. 한·중 대우표현의 용어 비교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은 같은 현상도 연구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학습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우표현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1.1. 한국어에서 대우표현을 지시하는 용어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하나는 타인을 직접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의 방법과 자신을 낮춤으로 타인을 높이는 겸양의 방법을 포괄하는 ‘존대’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낮추어 대우하는 ‘하대’의 경우이며, 또 하나는 타인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자신도 낮추지 않는 무표적인 실현 방법인 ‘평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표1 > 대우표현: 타인을 대우하는 방법

존대	높임	타인을 높여서 대우하는 방법
	겸양	자신을 낮춤으로 타인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는 대우방법
평대		타인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무표적인 대우 방법
하대		타인을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

한국어에서 화자가 타인을 대우하는 언어 현상에 대한 용어로는 존경법(尊敬法), 존대법(尊待法), 높임법, 경어법(敬語法), 대우법(待遇法)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다. 연구자마다 용어 사용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달리 하기 때문인데 본 장에서는 먼저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들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한국어에서 화자가 어떤 인물을 대우하는 언어 현상을 지시하는 용어로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이승녕(1964), 김종훈(1984), 임동훈(2006), 이정복(2008) 등이 있다. 그러나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포괄하고 있는 경어법의 범주는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한 갈래는 이승녕(1964), 이정복(2008)에서와 같이 경어법의 범위를 타인을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 표현에 한정된 경우이며, 다른 한 갈래는 김종훈(1984)과 임동훈(2006)에서와 같이 타인을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 표현이나 자신을 겸손하게 대우하여 타인을 높이는 겸양 표현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다.

<표2> ‘경어법’에 대한 입장

경어법	이승녕(1964) 이정복(2008)	타인을 직접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 표현
	김종훈(1984) 임동훈(2006)	타인을 직접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 표현이나 자신을 겸손하게 대우하여 타인을 높이는 겸양 표현

특히 김종훈(1984: 289)에서는 비경어적인 표현이 경어와 대립된다는 점에서 경어의 영역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여 타인에 대한 모든 대우 범주를 경어법이라는 용어 안에서 사용하였다. ‘경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높임이나, 공경 혹은 공대의 의미로 나타난다. 낮춤 표현과 겸양 표현이 경어가 가지는 의미와 대립된다고 해서 같은 범주 안에서 다룬다는 이런 논리는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더욱 큰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대립한다고 하여 통합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립되기 때문에 모두 다룰 수 있는 범주의 용어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

경어법과 의미를 같이하는 용어들에는 높임법, 존대법, 존경법 등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98), 김태엽(1996), 김영인(2002)은 높임법을, 허웅(1954), 신창순(1962)은 존대법을, 임홍빈(1990)은 존경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용어들은 대체로 타인에 대해 높여서 대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어법이나 높임법, 존대법, 존경법과 같은 용어들은 그 어휘의 의미 자체가 타인에 대한 존대의 경우만을 다루기 때문에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서정수(1984)와 이규창(1992)에서는 대우표현이란 용어의 적합성과 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유교문화권에서 종래 써오던 용어가 있기 때문에 학문의 교류나 공시적 연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존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윤하(2001), 성기철(2007), 최석재(2008)에서는 ‘대우법’이라 지칭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들 논의에서 말하는 ‘대우법’은 타인을 언어적으로 알맞게 대우해서 말하는 법을 의미한다. 즉 존대, 평대, 하대의 방법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존대는 타인을 직접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과 자신을 낮춤으로 타인을 높이는 겸양이고, 평대는 타인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으며, 또 자신에 대해서도 낮추지 않는 무표적인 대우방법이며, 하대는 타인을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으로 ‘대우법’이야말로 모든

말하는 법을 포함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용어들은 표면적인 의미부터 제한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높임’과 같은 대우의 한 측면만 다루고 있어 대우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대우법’은 사회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대상을 언어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대우하고,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여 ‘대우표현’이라는 용어로 ‘대우법’을 포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1.2. 중국어에서 대우표현을 지시하는 용어

중국어에도 타인을 언어적으로 대우하는 표현들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대우표현이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³⁾ 한국어의 대우표현처럼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지 않다. 중국어의 대우표현을 지시하는 용어로는 경사(敬词), 경사(敬辞), 경어(敬语), 예모어(礼貌语) 등이 있다.

먼저 경사(敬词), 경사(敬辞), 경어(敬语)와 같은 용어들은 대체로 “말이나 행위가 공경하고 정중하며 예의가 바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 남을 높여서 대우하는 높임 표현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예모어(礼貌语)는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공손하여 남을 공경하여 대우한다.”는 말로 경어와 겸어 모두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즉 타인에 대해 높임표현을, 자신에 대해 겸손표현을 사용하는 용어이다. 중국어에서 타인을 직접 높여서 대우하는 표현방법과 자신을 낮춤으로 타인을 높이는 겸양 표현을 한 범주 안에서 다룬 논저들로는 왕옥(王钰)(1995), 홍성옥(洪成玉)(1998), 류굉려·장지毅(刘宏丽·张志毅)(2001)가 있으며, 각각 별개의 범주로 다룬 논저들로는 류초반(刘超班)(1999), 류공무(刘恭懋)(2001), 부계

3) 중국어의 대우표현에 대해서는 2.2.2에서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화(傅继华)(2002), 류옥환(刘玉环)(2005) 등이 있다. 이상에서 용어의 의미를 볼 때 중국어에서는 대우표현을 표현하는 용어로 ‘예모어(礼貌语)’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본고의 취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두 언어를 비교분석 해야 하는 데, ‘예모어(礼貌语)’를 사용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국의 경우도 ‘대우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우표현에 사용하는 용어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용어가 포괄하는 의미에서도 차이가 있다. 용어의 사용에서 한국어는 ‘존대법’, ‘대우법’ 등과 같이 문법범주의 용어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경사’, ‘예모어’ 등 어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용어들이 포괄하는 의미 범주에서도 한국어의 경우는 대우하는 방법에는 하대, 평대, 존대의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있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평대와 존대의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한국어의 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과서에서는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의 사용은 학습자들에게 대우표현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대우표현’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비교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언어로 문법적 의미가 실현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 한국어는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ng language)로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語根 root)에 형식 형태소인 접사(接辭 affix)가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시키거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중국어는 고

립어로서 언어 맥락 속에서 형태의 변화가 없이 어순에 의해 문법적 관계가 표시되며 의미를 나타낸다. 두 언어의 이와 같은 형태적인 특성의 차이로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는 대우표현의 실현에서 전혀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어는 한 언어맥락 속에서 어휘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조사, 종결어미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떤 상대에 대한 존대 혹은 비존대 여부를 표현하지만 중국어는 특정 단어의 특정 위치에서의 출현으로 어떤 상대에 대한 존대 혹은 비존대 여부를 표현한다. 본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이 언어 환경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2.2.1. 한국어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된다. 어휘형태소에 의한 실현은 높임 의미를 가지는 ‘드시다, 진지, 계시다, 식사’ 등 특수 어휘에 의한 실현이고, 문법형태소에 의한 실현은 높임 의미를 가지는 조사 ‘-께서’, 선어말어미 ‘-(으)시-’, 종결어미 ‘-(ㅂ)습니다’ 등에 의한 실현이다.

2.2.1.1. 문법형태소에 의한 실현

한국어는 문법형태소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런 문법형태소에 의한 대우표현의 실현도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문법형태소에 의한 대우표현의 실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한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종결어미에 의한 실현된다.

우선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시-’는 서술어의 어간이나 서

술격조사에 붙어 문장의 주체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 (1) 가. 철수가 온다.
- 나.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 다. 동생이 들어온다.
- 라. 아버님이 들어오신다.
- 마. 그 사람이 찾아 왔다.
- 바. 그 분이 찾아 오셨다.

위의 예문 (1가)에서 서술의 주체인 ‘철수’는 화자나 청자와 비슷한 등급이므로 무표적인 ‘온다’로 대우하였지만, 예문 (1나)에서 할아버지는 화자나 청자보다 상위자 이다. 그러므로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와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동시에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높여서 대우하였다. (1다)에서 ‘동생’은 하위자이므로 무표적인 평대로 대우하였고, (1라)에서 ‘아버님’은 상위자이므로 높임 접미사 ‘-님’과,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여 대우하였다. (1마)는 가깝지 않은 사람인 손님에 대하여 무표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1바)는 손님에 대하여 높임의 의존명사 ‘분’과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 대우를 실현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타인을 나이나 사회적 지위, 공식성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단일 문법형태소 ‘-(으)시-’만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1나)에서와 같이 ‘-께서’와 같은 조사와 함께 실현되기도 하며, (1라)와 (1바)에서처럼 ‘-님’, ‘분’과 같은 접사와 의존명사들과 함께 실현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종결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종결어미는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화자가 청자와의 대비에서 적절한 대우표현을 선택하여 실현한다⁴⁾.

- (2) 가. 영희야, 빨리 가자.
 나. 창호야 너도 하나 먹어.
 다. 창호군, 자네도 하나 먹게.
 라. 동생, 참 오랜만이오. 그간 잘 지냈소?
 마. 요즘은 날씨가 좋아요.
 바.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위의 예문에서 (2가)는 청자인 영희가 화자보다 어릴 때 언어적으로 대우하는 표현방식으로 해라체에 속한다. (2나)는 해체의 표현 방법으로 주로 청자가 화자와 동급일 때나 화자에 비해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대우표현이다. 예문 (2다)에서 어머니는 ‘-게’를 사용하였고 그 행위의 대상에 있어서는 ‘-군’과 ‘자네’로 청자를 어느 정도 예우하여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어 대우표현의 하계체 표현방식으로 화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예문 (2라)에서 청자는 아랫사람이지만 둘 다 나이가 들었으므로 해체를 쓰지 않고 하오체의 표현 방식으로 어말어미를 ‘-오’와 ‘-소’를 사용하여 대화 상대를 높여서 대우해 주었다. (2마)는 형용사 ‘좋다’와 종결어미 ‘-요’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좋다’를 해체의 형식으로 바꾸면 ‘좋- + -아’로 ‘좋아’가 된다. 그러므로 ‘좋아요’는 ‘해체+요’의 구성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해요체는 대우의 대상이 화자에 비해 상위자일 때 사용하는 화계지만, 대우의 대상에 대해 상하위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또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구성이 간략하여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계이다. 예문 (2바)는 대우의 대상이 ‘여러분’으로 공적인 장소에서의 발화임을 알 수 있다.

4) 이영택(2003), 『학교문법의 이해』에서는 높임의 등급을 6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 6단계 등급은 ‘하다’의 명령형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쓰이는 격식체이고, ‘해체,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쓰인다.

하십시오체는 주로 사회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개인이나 공적인 언어 환경에서 사용된다.

이상 한국어의 대우표현이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 보았다. 주체대우표현은 주로 선어말어미 ‘-(으)시-’로 서술의 주체에 대한 대우가 실현되며, 청자대우표현은 주로 6단계 화계의 종결어미로 청자에 대한 대우가 실현한다.

2.2.1.2. 어휘형태소에 의한 실현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2.2.1.1.에서 살펴본 문법형태소를 통해 실현되는 방식 외에 일부 접두사, 접미사, 의존명사와 특수 어휘에 의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접두사, 접미사,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다른 어휘에 덧붙어서 타인에 대한 대우가 실현되며, 특수 어휘는 어휘 자체의 성격으로 타인에 대한 대우를 실현한다. 본고는 이들을 모두 어휘형태소에 의한 대우의 실현으로 보고, 이 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대립되는 새로운 어휘에 의하여 실현되는 방식이 있다. 일부 어휘들은 대우 대상을 달리 할 때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새로운 어휘로 그 대상에 대한 대우가 실현된다.

- (3) 가. 오늘은 영희의 생일입니다.
나. 오늘은 할머니 생신입니다.
- (4) 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 (5) 가. 나는 중국사람이야.
나. 저는 중국사람입니다.

- (6) 가. 철수야, 어제 술 마셨니?
 나. 선생님, 어제 약주 드셨어요?

위의 예문 (3가)에서는 청자인 ‘영희’가 화자와 비슷하거나 화자보다 하위자이므로 ‘생일’이란 무표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대우하였고, 예문 (4가)에서는 청자에 대하여 무표적인 어휘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표현으로부터 청자가 화자에 비해 하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5가)에서도 예문 (4가)와 같이 무표적인 어휘 ‘나’를 써서 청자가 화자에 비해 하위자나 같은 등급임을 알 수 있다. (6가)에서 ‘철수’는 존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술’을 사용하여 무표적으로 대우하였다. 하지만 예문 (3나)에서는 청자가 ‘할머니’로 화자에 비해 상위자이므로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생일’의 높임 표현인 ‘생신’을 사용하여 대우하였으며, 예문 (4나)에서는 청자가 화자에 비해 상위자이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이지만 낮은 사람일 때 높임 표현인 ‘당신’을 사용하여 청자를 높여 대우하였다. 예문 (5나)에서는 ‘나’ 대신 자기 겸양의 ‘저’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여 대우하였고, 예문 (6나)에서도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술’의 높임 표현인 ‘약주’로 대우하여 표현하였다.

- (7) 가. 나는 선생님께 여쭙 보았다.
 나. 나는 영희에게 물어 보았다.
 (8) 가. 나는 할머니를 모시러 간다.
 나. * 나는 할머니를 데리러 간다.

위의 예문에서 (7가)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선생님’이므로 조사 ‘께’와 겸양동사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에 대한 존대를 표현하였고, (7나)에서 행위의 대상인 ‘영희’는 상위자가 아니므로 무표적인 ‘묻다’를 사용하여 대

우하였다. 예문 (8)에서는 행위의 대상이 객체인 ‘할머니’이므로 예문 (8가)에서처럼 ‘모시다’로 객체를 높여서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8나)에서는 평대의 표현 ‘데리다’로 대우하였으므로 비문이 된다. 이 두 예문은 한국어의 객체대우의 실현 방식으로 대우의 상대는 주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고, 주로 겸양 동사들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어는 대우하는 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행위의 의미는 같지만 대우 정도가 다른 어휘를 통해 대우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유표적인 접사나 의존명사가 무표적인 어휘에 덧붙여 실현되는 방식이 있다. 한국어에는 ‘-님’과 같은 높임을 나타내는 접사와 ‘님, 씨, 군, 양, 분, 놈’과 같은 높임이나 낮춤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다른 어휘에 붙어 유표적인 대우를 실현한다.

(9) 가. 사원님은 언제 해외 파견 가십니까?

나. 김명희 님, 진료실 앞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다. 영희 씨, 커피 한잔 부탁드립니다.

라. 김 군, 이번 일은 자네가 맡게.

마. 김수진 양, 경비실에 가서 택배 찾아와요.

바. 두 분이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 너 이놈, 잘 만났다⁵⁾.

아. 이놈이 모르고 그랬으니 벌을 내려 주십시오.

위의 예문(9가)와 (9나), (9다)의 ‘님’과 ‘씨’는 현대 한국어의 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대우표현의 방식이다. ‘님’의 대우 대상은 ‘씨’의 대상보다 상위자이며⁶⁾, 종결어미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모두 호응이 된

5) 예문 (9사)와 (9아)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6) ‘님’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접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의존명사로서의 ‘님’은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서 대우하며,

다. 반면 ‘씨’는 일반적으로 ‘해요체’와 ‘해체’의 종결어미와 호응이 된다. 예문 (9라)에서 ‘군’은 친구나 아랫사람을 높여서 대우하는 표현 방식으로 화자가 나이가 좀 있어야 하며, 종결어미는 주로 ‘하게체’로 실현된다. 예문 (9마)에서 ‘양’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성이나 이름 뒤에 쓰여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서 대우하는 표현 방식으로 젊은 층 화자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해요체의 종결어미와 잘 어울리며,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도 사용된다. 예문 (9바)에서 ‘분’은 사람을 높여서 대우하거나 높여서 대우하는 사람을 셀 때 사용하는 높임 대우표현 방식이다. 예문 (9사)는 청자가 남자일 때 그 청자를 하대하여 대우하는 표현이며, 예문 (9아)는 남자가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대우하는 겸양표현의 경우이다. 이런 대우표현의 실현방식은 한국어의 대우표현 실현에서 필수적인 실현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종결어미와 호응하여 실현 되므로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꼭 습득하여야 할 대우표현의 방식이다.

2.2.2. 중국어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앞선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의 대우표현은 주로 어휘에 의하여 실현된다. 한국어는 문장의 주체나 청자가 화자와 대비하여 나이나 직위, 친소관계, 이해관계 등 사회적 변인에 따라 모두 달리 표현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표현방식의 차이가 그리 엄격하지 않다.

중국어에서 대우표현과 관련된 어휘의 실현방식은 한국어의 대우표현 실현방식과 유사한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다. 중국어에도 평대의 어휘에 대립되는 높임 표현의 어휘가 있으며, 한국어의 ‘-님, 분, 씨, 놈’과 같

‘씨’보다 더 높임을 나타낸다. 접사로서의 ‘님’은 ‘사장님, 총장님’과 같이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나, ‘달님, 별님’과 같이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나, ‘공자님, 부처님’처럼 예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 그 대상을 높여서 대우한다. 의존명사 ‘씨’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서 대우할 때 쓰인다.

이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높임의 대우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의 어휘적 대우의 실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중국어에도 평대에 대립되는 새로운 대우표현의 어휘가 있다.

일부 어휘들은 대우 대상을 달리 할 때, 기본 의미는 같지만 대우 정도가 다른 새로운 어휘로 그 대상에 대한 대우가 실현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도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어휘로 ‘生日’, ‘寿辰’이 있는데 ‘生日’은 친구나 하위자에 쓰고, ‘寿辰’은 상위자에 사용한다. 또 ‘你’의 높임 표현으로 ‘您’, ‘閣下’ 등이 있으며, ‘我’의 겸양 표현 방식으로 ‘在下’, ‘鄙人’, ‘晚生’, ‘小生’ 등이 있다.

(10) 가. 今天是小弟的生日。(오늘은 남동생의 생일입니다.)

나. 今天是奶奶的寿辰。(오늘은 할머니의 생신입니다.)

다. 奶奶, 祝您生日快乐。(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 *奶奶, 祝您寿辰快乐.

(11) 가. 你是哪国人?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 您是哪国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 阁下是哪国人?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2) 가. 我是中国人。(나/저는 중국사람이야/이에요/입니다.)

나. 在下关羽, 有何贵干? (제가 관우이에요/입니다.

무슨 용건이 있으신가요/?십니까?)

예문 (10가)와 (10나)에서는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하위자인 남동생일 때는 무표적인 ‘生日’로 대우하였으며, 서술의 주체가 상위자인 ‘할머니’일 때는 높임을 나타내는 ‘寿辰’을 사용하여 ‘할머니’를 대우하였다. 이는 상은 한국어와 같다. 그런데 예문 (10다)와 (10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자가 ‘할머니’일 때는 ‘생일’이라는 ‘生日’을 써야지 ‘寿辰’을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예문(11)은 인칭대명사 ‘你(너)’와 ‘너’의 높임 표현 ‘您(당신)’, ‘閣下(당신)’의 실현 방법을 보인 것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2인칭의 높임 표현으로 ‘您’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閣下’는 서신이나 문서에서 아주 가끔 사용되고 있다. 예문(12)은 인칭대명사 ‘我(나)’와 ‘나’의 겸양 표현 ‘在下(저/제)’의 실현 방법이다. 중국어에는 ‘나’의 겸양 표현인 ‘저/제’에 대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 그 활용이 활발하지 않고, 일반적인 구어에서는 ‘我(나)’를 그대로 사용한다.

- (13) 가. 我问过老师。(나는 선생님께 여쭙 보았다.)
 나. 我问过明姬。(나는 명희에게 물어 보았다.)
- (14) 가. 我去接奶奶。(나는 할머니를 모시러 간다.)
 나. 我去接孩子。(나는 아이를 데리러 간다.)
- (15) 가. 明天去进见首长。(내일 수장님을 뵈러 간다.)
 나. 明天去见明姬。(내일 명희를 만나러 간다.)

위의 예문은 한국어의 객체대우표현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어의 대우표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예문(13)과 예문(14)는 한국어에서의 무표적인 ‘묻다’와 ‘데리다’가 상위자를 대우할 때에는 겸양표현 ‘여쭙다’와 ‘모시다’로 실현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모두 무표적인 방식으로 실현 되었다. 예문(15)에서는 ‘만나다’, ‘보다’가 ‘수장님’이라는 상위자를 대우하여 표현할 때는 겸양표현 ‘进见’을 사용하였다. ‘만나다’, ‘보다’의 겸양 표현으로 ‘拜见, 会见, 谒见’ 등이 더 있지만, 이러한 겸양어들은 사실 문어체에서 가끔 쓰일 뿐 현대 중국어의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객체대우는 특수 어휘에 의하여 실현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우표현이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

둘째, 무표적인 어휘에 덧붙여 대우표현이 실현되는 방식도 있다. 중국

어에도 ‘贵-, 玉-, 尊-, 家-, 舍-, 小-, 令-, 拜-, 奉-, 赐-, 失-, 见-, 呈-, 禀-, 恭-’과 같은 높임을 나타내는 접사와 ‘성씨+老’가 붙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있는데 이들은 무표적인 어휘에 덧붙여서 어떤 대상에 대한 높임이나 자신에 대한 겸양을 나타낸다.

(16) 가. 祝贵司生意兴隆。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나. 我还没见过令爱的玉容。

(저는 아직 당신 따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家父最近卧病在床。

(저희 아버지는 요즘 병상에 계십니다.)

라. 小儿不懂事, 请您原谅。

(저희 애가 철이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마. 您若不介意, 我愿奉陪。

(괜찮으시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바. 拜托您帮我个忙好不好?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 王老, 最近忙些什么?

(왕선생님, 요즘 뭘 하시나요?)

아. 我有事先失陪了。

(저는 일이 있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예문 16(가, 나, 마, 바, 사)의 경우는 대화 상대를 높여서 대우하는 표현 방법이며, 예문 16(다, 라, 아)의 경우는 자신에 대한 겸양으로 상대를 높여 대우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처럼 중국어에도 한국어와 같이 다른 어휘들에 덧붙여서 높임이나 겸양 등을 나타내는 대우표현 방식이 있다.

중국어의 대우표현은 높임이나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에 의하여 실현되

며, 이런 어휘에는 무표적인 어휘에 대립되는 높임이나 겸양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어휘도 존재하고, 중국어에도 한국어의 ‘-님’이나 ‘귀-’나 ‘-씨’ 등과 같이 다른 어휘에 덧붙여서 실현되는 ‘贵-, 尊-, 家-, 小-’와 같은 접사의 기능을 하는 어휘가 있다. 중국어의 많은 높임 표현들은 문어체에서 좀 더 많이 쓰이며 일상 구어체에서는 쓰임이 활발하지 않다.

2.2.3. 한·중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 비교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 양상을 살펴볼 때 공통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임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 모두 직접적으로 타인을 높여 대우하거나 낮추어 대우하며, 자기 겸양의 실현으로 타인을 높여 대우하기도 한다. 둘째. 대립되는 높임이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들이 따로 존재한다. 셋째, 많은 어휘들은 높임이나 겸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소와 결합하여 타인에 대한 유표적인 대우를 실현한다.

반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 양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는 대우표현은 어휘, 조사, 어미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현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다만 몇몇 어휘형태소에 의해서만 대우표현이 실현된다.

(17) 가. 철수야, 영희가 학교에 데리러 오래.

나. 엄마,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경로당에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18) 가. 哲秀, 英姬叫你去学校接她。

나. 妈妈, 奶奶叫您去老年会所接她。

위의 예문에서 보면 (17가)에서 청자와 제3자는 모두 화자와 같은 또래로 일반 주격조사 ‘-가’, 일반 동사 ‘데리다’와 해체의 종결어미 ‘오래’로 대화의 대상들을 평등으로 대우하였다. (17나)에서 청자, 서술의 주체, 객체는 모두 화자에 비해 상위자이며, 서술의 주체와 객체는 또 청자에 비해 상위자이므로 높임 의미의 주격조사 ‘-께서’와 높임 의미를 갖는 동사 ‘모시다’와 높임 의미의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해요체의 종결어미 ‘-어요’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여서 대우하였다. 예문 (18)은 예문 (17)과 같은 대상에 같은 상황의 중국어에서의 대우표현의 실현 방법인데 예문 (18가)와 예문 (18나)를 살펴보면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한 요소는 ‘你’와 ‘您’뿐이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우하지만, 중국어에는 주체와 청자에 대해서만 대우표현을 실현한다.

위의 예문 (17나)에서는 객체인 ‘할머니’에 대하여 ‘모시다’라는 높임 표현으로 대우하였지만, (18나)에서는 청자에 대해서만 ‘您’으로 높임을 나타냈을 뿐 객체인 할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어는 종결어미는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실현되고, 또 공식성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지만, 중국어는 다르다. 중국어도 ‘呢, 啦, 啊, 吧, 吗’등과 같은 몇 개의 조사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들은 문장의 유형만 나타낼 뿐, 청자에 대한 대우 등급은 나타내지 않는다.

(19) 가. 영희야, 빨리 가자.

나. 언니, 빨리 가요.

다. 선생님, 빨리 갑시다.

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마.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 좀 할게요.
- (20) 가. 英姬, 快走吧.
- 나. 姐姐, 快走吧.
- 다. 老师, 快走吧.
- 라. 借这个机会我给大家说几句话。
- 마. 今天我给大家说几句话。

위의 예문 (19)에서는 청자의 신분이 다름에 따라, 또 공적인 자리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 종결어미가 해라체, 해요체, 하십시오체로 모두 다르게 사용되지만, 예문 (20)에서 (가~다)는 호칭만 다를 뿐 문장은 모두 어기조사 ‘吧’로 마무리된다. 예문 (19)와 예문 (20)에서 (라)와 (마)는 공적인 자리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방식이다. 한국어에서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표현인 ‘여러분께 얘기 좀 할게요.’가 공식성이 부여될 때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로 대우표현을 실현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똑같이 ‘给大家说’로 대우표현을 실현한다.

이상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어휘형태소에 의한 대우표현의 실현 방법에서는 비슷한 점을 보이지만, 한국어는 주로 문법형태소에 의하여 대우표현이 실현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우표현의 실현에서 형식이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장 중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의 대우표현 내용 분석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교재이다.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하는 교수-학습의 매개체이며 가르칠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언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는 목표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⁷⁾ 따라서 학습자들은 교재에 실린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다양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즉 교재의 내용과 목표어 사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목표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에 있어서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한국어 대우표현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대우표현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우표현을 실현시키는 항목의 제시방법 및 그 활용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질문4> 귀하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사용한 한국어 교재는 무엇입니까?

북경대학교	연변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기타	합계
20 명	1 명	8 명	5 명	2 명	36
56%	3%	22%	14%	6%	100%

조사 결과 중국현지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교재는 북경대학교의 한국어 교재가 56%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변

7) 서울대학교(2012),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중 「한국어 교재론」 425쪽.

대학교에서 간행한 교재였다. 기타로 답한 피조사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유는 어느 교재로 학습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북경대학교의 한국어 교재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도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교재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활용도 2위로 나온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⁹⁾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저자	교재명	출판지	출판년도
북경대학교 李先漢 외	한국어	중국	2008.0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한국	2013.03.05

3.1. 북경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내용 분석

북경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초급단계의 한국어로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책은 20과로 구성되었으며, 1권의 첫 10과까지는 한국어의 자음, 모음, 발음 등 한글에 대한 기본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11과부터 본문, 새로운 단어, 어휘와 관용어, 문법과 관용어, 연습, 보충단어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는 부분적으로 ‘어휘와 관용어’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문법 형태소는 ‘문법과 관용어’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우표현의 체계와 관련하여 제1

8) 이 교재는 2008년에 북경대학교에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개편한 교재이지만, 기존에 편찬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 책의 편집설명에서 언급하였다. 이번 교재의 개편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국립국어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용어나 체계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현행 국어 문법의 용어와 체계를 따랐다고 한다.

9)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연세대학교 교재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2013년에 새로 수정 편찬한 교재로 중국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는 차이점이 있다.

권 17과에서 제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표4> 교재에 제시된 한국어 대우법 체계¹⁰⁾

<p><한국어의 경어법></p> <p>한국어는 경어법이 아주 발달하였으며 주로 어휘와 문법형식으로 실현된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청자경어법으로 나뉜다.</p> <p>(1) 주체경어법: 문장의 주체를 높여주며, 주로 '-시-/-으시-'로 실현된다. '-시-/-으시-'는 일반적으로 조사 '께서'와 함께 사용한다.</p> <p>(2) 객체경어법: 객체와 동작이 미치는 간접대상에 대한 높임이며, 주로 조사 '께' 혹은 '드리다', '모시다', '뵙다' 등 어휘에 의하여 실현된다.</p> <p>(3) 청자경어법: 화자가 청자에 대한 높임이며, 주로 종결어미에 의하여 실현된다. 종결어미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존대태도에 따라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께'체, '해라'체, '해'체 등 6가지 등급으로 나뉜다.</p> <p>① '합쇼'체와 '해요'체 :</p> <p>이 둘은 모두 화자에 비하여 나이가 많거나, 상급이거나 혹은 높여서 대우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합쇼'체는 격식체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되며,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p> <p>② '하오'체와 '하께'체 :</p> <p>모두 격식체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동급 사이거나, 연장자가 자신보다 어린 후배에게 친근하게 대하거나 격식을 차릴 때 사용한다.</p> <p>③ '해라'체와 '해'체 :</p> <p>'해라'체는 격식체이고, '해'체는 비격식체이다. 모두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어른이 아이에게, 가까운 동급사이에서나 혹은 어린아이들 사이에 사용된다.</p>

위의 표에 제시된 한국어 대우법의 체계는 내용을 봤을 때 한국인 학습자들의 국어 문법서에서 제시하고 설명한 것을 요약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 이제 한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중국인 학습자

10) 교재에서는 중국어로 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절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원문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11) 임지룡 외(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269~274쪽.

들에게 이런 대우체계의 제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우표현의 삼분 체계에 대한 설명만 있고 예문은 하나도 없어 중국인 학습자들은 더욱 습득이 안 된다. 위의 표에서는 또 청자대우의 6단계 화계도 모두 제시하였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하오체’와 ‘하계체’의 제시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의 표와 같은 제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자칫하면 학습자들이 학습 흥미를 잃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급 단계의 한국어에서 위의 표와 같이 대우체계를 제시하려면 ‘하오체’와 ‘하계체’를 빼고 예문을 추가하여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체계를 복습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 교과서에서는 또 청자대우의 6단계 화계의 종결어미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5> 교재 청자대우법의 6등급 화계

등급 문형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평서형	-습니다 -습니다	-아요 -어요 -여요	-오/-으오 -소	-네 -으네	-다 -니다 -는다	-아 -어 -여
의문형	-니까 -습니까	-아요 -어요 -여요	-오/-으오 -소	-는가 -은가 -는가	-냐 -니	-아 -어 -여
명령형	-십시오 -으십시오	-아요 -어요 -여요	-오/-으오 -소	-게	-아라 -어라 -여라	-아 -어 -여
청유형	-시다 -읍시다	-아지요 -어지요 -여지요		-세	-지	-자
감탄형	-니다 -습니다	-군요 -는군요 -로군요	-구려 -는구려 -로구려	-구먼 -는구먼 -로구먼	-구나 -는구나 -로구나	-아 -어 -여

위에서 대우체계에 대한 <표4>와 마찬가지로 <표5>도 초급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만약 1권17과에서 꼭 제시하고자 한다면 모든 종결어미를 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1권17과까지의 학습에서 이미 배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만 표로 제시한다. 3권에서는 ‘해체’를 학습하고 나서, 학습한 3가지 종결어미 ‘해요체’, ‘하십시오체’, ‘해체’를 위의 <표5>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4권에서도 ‘해라체’를 학습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한 종결어미를 표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새로운 화계의 종결어미를 학습할 때마다 이미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서로 다른 화계의 종결어미들을 비교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청자대우를 습득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1.1.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의 제시

북경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들을 볼 때 중복 제시된 어휘를 제외하면 총 25개이다. 제시된 어휘 항목들을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6> 북경대학교 교재의 대우표현 어휘 항목 제시

어휘 항목 제시	
1권	저, 제, 씨, 그분/저분, 계시다, 드리다, 이분, 말씀하다, 님, 들다, 주무시다, 저희, 뵙다, 말씀, 분, 여쭙다, 생신.
2권	주무시다, 뵙다, 연세, 여쭙다, 모시다, 뵈다, 당신, 댁.
3권	돌아가시다.
4권	-

초급단계에서 제시된 25개 어휘 중에서 1권에 제시된 어휘 수는 18개

이다. 1권에 제시된 높임 표현의 어휘들 중에서 ‘어휘와 관용어’에서 자세하게 다룬 어휘는 ‘씨’ 하나이다. 나머지 17개 어휘는 본문과 문법 설명이나 연습문제에서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이 어휘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예문이 있다면 학습과정에서 오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휘에 의하여 실현되는 객체대우표현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다음 이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 설명을 살펴보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교재에 제시된 ‘뵈다’와 ‘뵈다’는 중국어의 설명이 아래 표에서와 같이 동일하다.

<표7> 북경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뵈다’와 ‘뵈다’의 설명

제시 단어		중국어 설명	한국어 번역
1-18	뵈다	[他] “보다”의敬语, 拜见, 拜谒	[타] ‘보다’의 경어, 찾아뵈다
2-7	뵈다	[他] 见到, 拜见, 拜谒 (“보다”의敬语形式)	[타] 만나다, 찾아뵈다 (‘보다’의 경어형식)

‘뵈다’는 1권18과에서 제시되었고, ‘뵈다’는 2권7과에서 제시되었다. 이 교재에서는 이 두 어휘에 대하여 똑같은 설명만 하였을 뿐 두 어휘의 차이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국인 학습자들이 2권에서 ‘뵈다’를 학습하고 나면 활용에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여쭈다’와 ‘여쭈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2권에서 ‘뵈다’가 제시될 때 이미 학습된 ‘뵈다’를 학습자들에게 다시 한 번 언급해주면서 ‘뵈다’는 ‘뵈다’에 비해 더 겸양의 뜻을 나타낸다는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 예문을 제시해주어 학습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두 어휘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어휘는 일반어휘의 높임표현으로 제시만 되고 그에 대응

하는 예문이나 활용방법이 전혀 기술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그 높임표현에 대하여 학습은 하였지만 그 어휘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교재에 제시된 어휘를 예로 보면 1권 17과의 보충단어에서 ‘먹다, 식사하다’의 높임표현으로 ‘들다’를 제시하였는데, 이 단어의 경우 교재 ‘어휘와 관용어’ 부분에서 ‘좀’의 활용으로 제시된 예문 ‘물 좀 드세요’에서 ‘드세요’가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추가의 설명이 없이 제시된 어휘들은 초급 학습자들로서는 절대 ‘들다’와 ‘드세요’를 연결시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들다’의 발화 상황을 부딪쳤을 때 필히 많은 오류가 나타날 것이다.

3.1.2.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문법형태소의 제시

다음으로 대우표현에 참여하는 문법형태소들이 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네 권의 교재에 대우표현에 참여하는 어떤 문법형태소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표8> 북경대학교 교재의 대우표현 문법 항목 제시

	문법 항목 제시
1권	-됩니다/-습니다, -됩니다/-습니까, -입니다/-입니까 -시-/~으시-, -십시오/~으십시오, -세요/~으세요 -아요/~어요/~여요, -예요/~이예요/~예요, -께서, -께
2권	-요, -군요/~는군요, -아/~어/~여, -습니다/~읍시다
3권	-요
4권	-십시오/~으십시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문법형태소도 어휘형태소와 같이 대부분 1권에서 제시되고 있다. 문법형태소의 제시 순서는 1권에서 제일 먼저 ‘합쇼체’가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해요체’가 제시되었으며, 2권에서는 해요체와 해체가 제시되었다.

대우표현은 한국어의 사용에서 아주 보편적이고, 또 원활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대우표현에 아주 서툰 중국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대우표현을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우표현은 한국어 교육의 어느 한 단계에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단계가 올라가도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하고 연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는 초급단계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문법 항목의 제시에 있어서도 타당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위의 표에서 1권에 제시된 첫 3개의 종결어미를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세 종결어미는 모두 1권의 11과에서 제시되었는데 ‘-니다/-습니다, -니까/-습니까’가 함께 묶어서 제시되었고, ‘-입니다/-입니다’가 따로 제시되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니다/-습니다’의 교재 제시

	교재 제시	한국어 번역
항목	-니다/-습니다, -니까/-습니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다/-습니다”表示叙述 “-니까/-습니까”表示疑问 用于需要对听者表示尊敬的情况 ☞ 没有韵尾的用言 (包括韵尾ㄹ) ‘-(으)시-’ + ‘-니다/-니까’ ☞ 有韵尾的用言 (韵尾除外) ‘-았-/-었-/-였-, -겠-’ + ‘-습니다/-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다/-습니다’는 서술을 나타내고 ‘-니까/-습니까’는 의문을 나타내며 칭자를 높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받침이 없는 용언(받침‘ㄹ’포함)이나 ‘-(으)시-’ + ‘-니다/-니까’ ☞ 받침 있는 용언(받침‘ㄹ’제외)이나 ‘-았-/-었-/-였-, -겠-’ + ‘-습니다/-습니까’
예문	- 반갑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맞습니다. - 좋습니까?	

<표10> ‘-입니다/-입니까’의 교재 제시

	교재 제시	한국어 번역
항목	- 입니다/-입니까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接在体言后面, 用于需要对听者表示尊敬的情况。 ☞ “-입니다”表示叙述, 相当于汉语的“是……” ☞ “-입니까”表示疑问, 相当于汉语的“是……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의 뒤에 붙어 청자를 높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입니다’는 서술을 나타내며 중국어의 ‘是……’와 비슷하다. ☞ ‘-입니까’는 의문을 나타내며 중국어의 ‘是……吗?’와 비슷하다.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준호입니다. - 신입생입니까? - 대학생입니다. - 1학년 학생입니까? 	

위의 표에서 보면 첫째, 문법형태소 ‘-입니다/-입니까’의 제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실 ‘-입니다’는 ‘-입니다’가 ‘이다’의 어간에 붙은 것이고, ‘-입니까’는 ‘-입니까’가 ‘이다’의 어간에 붙은 것이다. 위의 표에서 ‘-입니다/-입니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체언의 뒤에 붙어’와 중국어의 ‘是……’와 비슷한 것 등은 ‘이다’의 활용과 의미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청자를 높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거나 서술이나 의문을 나타낸다는 등은 ‘-입니다/-입니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입니다/-입니다’의 새로운 문형을 습득시키는 것 보다 ‘-입니다/-입니다’와 ‘이다’의 활용을 습득시키는 것이 이들 종결어미 외의 다른 종결어미를 학습하거나 ‘이다’를 활용함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둘째, 활용에 대한 설명이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받침이 있는 용언 + 종결어미’의 형식으로 활용 방법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입니다/-입니다’가 용언에 직접 붙는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예문의 제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제시 실례를 아래 표

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11> 교재에 제시된 예문 분석

제시된 문법 항목	제시된 예문
-습니다.	
-습니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습니까?	좋습니까?

위의 표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과 제시된 예문을 보면 ‘-습니다.’의 경우는 해당되는 예문을 찾을 수가 없고, ‘-습니까.’의 예문으로 두 개나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어떤 문법현상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확실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문의 제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소의 교육에서 예문 제시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넷째, 대우표현들은 제시하고 설명하였지만, 활용하는 연습을 매우 적다. 교재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의 형태소들을 보면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것이 전부이다. 설명과 제시된 예문으로 해당 대우표현들을 이해는 하겠지만 충분한 연습이 없이 학습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시된 대우 항목은 꼭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상 북경대학교의 『한국어1~4』에서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대우표현 체계는 표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청자대우표현의 경우도 화계에 따른 종결어미를 문형에 맞춰 모두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시된 시점이 너무 이르다. 그리고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들은 무엇보다 설명과 활용연습이 너무 부족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한 대우표현으로 새로운 문형을 생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활용의 어려움은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한다.

3.2. 연세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내용 분석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초급단계가 총 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권에는 5개 과가 실려 있다. 연세한국어는 1권에서 1과가 시작되기 전에 한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고, 매 과는 4개의 항과 1개의 총정리로 구성되었고 매 항은 학습목표, 본문 대화, 어휘, 문법 연습, 과제, 본문 번역, 문법 설명의 순서로 구성되었다¹²⁾.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교재의 전반 대화에 여덟 명의 인물을 설정하였는데 등장인물들 사이의 나이 차이가 적어 대우표현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인인 나이에 대한 대우표현의 모든 경우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대우표현의 체계가 따로 제시되지 않고 1-3-2¹³⁾의 ‘어휘’ 부분에서 ‘존대어’로 주체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가 다섯 개 제시되었고, 1-5-1의 ‘문법 설명’ 부분에서 청자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종결어미가 제시되었다.

3.2.1.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의 제시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체를 높여서 대우할 때 사용되는 어휘를 위주로 총 11개를 제시하였다.

12)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매 과에는 4개의 항이 제시되었고, 매 권에는 5개의 과가 실려 있어, 실은 매 권에 20개의 과를 실은 것과 같다.

13)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매 과에 4개의 작은 과들이 ‘항’으로 제시되어 있어, 과의 표기 방법은 ‘권-과-항’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1-3-2는 1권의 3과 2항을 표시하는 것이다.

<표12>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제시
1-1권	씨, 저, 제, 계시다, 드시다, 말씀하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리다.
1-2권	-
2-1권	말씀, 뵙다.
2-2권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존대어로 제시된 어휘 외에 추가로 제시된 대우표현의 단어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1-1에 집중되어 있다. 존대어로 제시된 것 외의 어휘에 대해서는 설명이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면 1-1-1에 나오는 ‘씨’는 ‘어휘’ 부분에서 ‘이름 부르기’에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예 : 이름 부르기

최민수 씨, 민수 씨

(연습으로)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위에 제시한 것처럼 ‘씨’에 대해서는 ‘문법 연습’에서 ‘입니다’의 활용과 ‘-은/는’의 활용을 설명한 부분에 제시된 것이 전부이다. 현재 제시된 것과 같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면 비슷한 또래들에 대한 ‘씨’의 활용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지만, ‘씨’의 활용 대상을 ‘친구’에 해당되는 또래에 한정시킬 수 있다. 사실 ‘씨’를 사적인 자리에서 친한 친구에게 사용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명을 좀 더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 과의 <어휘> 부분에서 ‘저’와 ‘제’가 제시되었는데, 이 단어들을 중국어로 ‘저’는 ‘我’, ‘제’는 ‘我的’로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저의’가 줄어들면 ‘제’로 되지만, ‘제’의 의미와 ‘저의’의

미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추가 설명이 없이 이렇게만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표13> 한국어와 중국어의 1인칭 대명사의 실현 방법

我	한국어 표현	중국어 표현
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我该怎么办?
저	저는 학생입니다.	我是学生。
제	제가 김영수입니다.	我是金英秀。
내	내가 할 차례야.	轮到我了。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인칭 대명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표현 방법이 아주 다양하지만 중국어에서는 ‘我’ 하나로만 실현된다. 그러므로 ‘제’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없이 ‘我的’로 제시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제가 김영수입니다’와 같은 예문을 ‘나의 김영수(我的金英秀)’로 문장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뵙다’의 경우는 2-1-1의 본문에서 ‘처음 뵙겠습니다.’로 나왔으며 관련된 설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1-3-2의 ‘어휘’ 부분에서 ‘존대어’로 주체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를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4>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존대어

여동생이	할머니께서
있다	계시다
자다	주무시다
먹다	잡수시다/드시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위의 표는 교재에서 ‘존대어’로 제시된 높임 표현의 어휘들인데, 모두

주체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어휘들이다. 교재에는 위 표의 내용 외에 추가 설명은 없다. 하지만 ‘존대어’라는 표제에서 이 표의 제시 의도와 제시되는 어휘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대우의 대상은 ‘여동생’과 ‘할머니’임을 알 수 있어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 이 어휘들은 ‘어휘’의 연습부분과 ‘과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는 주제에 관련된 어휘는 삽화도 하고 어휘 연습으로 활용 방법도 제시하였지만 주제와 연관성이 적은 단어는 ‘어휘’ 부분이 아닌 본문이나 과제 밑에 따로 제시하였으며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습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3.2.2.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문법형태소의 제시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대우표현의 실현에 참여하는 문법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5>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

	문법 항목 제시
1-1권	-입니다, 입니까?, -습니까?/ㅁ니까?, -습니다/ㅁ니다.
	-(으)시-, 께서, -읍시다/ㅁ시다.
	-아요/-어요/-여요, -으세요/세요, -지요?.
1-2권	-께, -는군요/군요.
2-1권	-는다/ㄴ다/다, -니?, -어라/아라/여라, -자.
2-2권	

위의 표로부터 문법 항목의 제시방법도 어휘 항목과 마찬가지로 주로 1-1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였다. 청자대우표현의 ‘합쇼체’가 제일 먼저

제시되었고, 다음 주체대우표현의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 ‘-(으)시-’, 청자대우표현의 ‘해요체’가 1-1과 1-2에서 제시되었다. ‘해라체’와 ‘해체’의 순서로 2-1권에서 제시되었으며 2-2에서는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문법 형태소가 제시되지 않았다. 2권에서 ‘해체’와 ‘해라체’가 제시되는 4장과 5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합쇼체’와 ‘해요체’로 기술되었다.

교재 1-5-1의 ‘문법 설명’부분에서 청자대우법의 실현에 참여하는 ‘합쇼체’와 ‘해요체’의 종결어미가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경우로 나뉘어 문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표16> 연세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종결어미

	격식체	비격식체
서술문	-습니다/브니다	-어요/아요/여요
의문문	-습니까/브니까?	-어요/아요/여요?
명령문	-으십시오/십시오	-으세요/세요
공동문	-읍시다/브시다	-어요/아요/여요

이 교재에서는 격식성 유무에 따른 문형을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표로 제시하여 격식적인 환경에서와 비격식적인 환경에서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할 종결어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표가 제시되는 시점에 이 표에 제시된 모든 문법형태소를 다 학습한 것이 아니라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표에 제시된 문법형태소들은 교재에서 위 표와 같이 제시만 되어 있을 뿐, 이 표의 종결어미에 대한 설명이나 연습이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종결어미와 아직 학습하지 않은 종결어미가 한데 섞여 헷갈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제시는 2권

에서 예문을 추가하여 제시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¹⁴⁾.

다음으로 이 교재에서 문법형태소들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입니다’를 예로 살펴보자.

<표17> 교재에 제시된 ‘입니다’의 설명

	교재 제시	한국어 번역
입니다	和动作动词或者状态动词不同, ‘이다’不可以单独放在句子的末尾, 需要跟在名词后面, 像动词一样使用, 表明事物的身份、状态或指定一件事情、一个事物. ‘입니다’在正式场合上使用.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와 다르다. ‘이다’는 문장의 끝에 단독으로 올 수 없으며 명사에 붙어 쓰인다. 동사와 같이 활용하며, 사물의 신분이나 상태 혹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물을 지정한다. ‘입니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쓰인다.

위의 표에서 교재에 제시된 ‘입니다’의 설명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된 듯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 ‘입니다’는 ‘이다’의 높임 표현으로 중국어의 ‘是’와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더 이해하기 쉽다¹⁵⁾. 앞서 북경대학교에서 간행된 교재의 분석에서도 ‘-입니다.’에 대하여 논의하였지만, ‘-입니다.’는 ‘이다’와 ‘-입니다.’가 결합된 것으로 ‘-입니다’의 활용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하면 학습자들은 ‘-입니다.’를 ‘-입니다.’와 별개의 문법항목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게 되어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다.

14)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칭유문’을 ‘공동문’이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는데, 중국어에는 공동문(共動文)이라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대우표현에 관련하여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다루지 않는다.

15) 이 교재에서 동사는 ‘동작 동사’란 용어로 쓰고 형용사는 ‘상태 동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에는 ‘형용사’는 있지만 ‘상태 동사’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므로 문법 설명에 있어서 ‘상태 동사’보다 ‘형용사’를 쓰는 것이 학습자들이 문법 설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 역시 교재의 문제로 보이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대우표현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은 설명만 중국어로 되어있고, 예문이나 연습, 과제 모두 한국어로 되어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어로 이해를 하고 목표어로 해당 문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교재는 학습자들이 충분한 활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단순 연습부터 유의미적 연습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도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연세대학교의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으며, 대우표현의 관련 요소들의 제시에서도 설명과 활용하는 예문이 난이도에 따라 잘 제시되어 있다. 문제점이라면 중국어로 설명을 할 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이 교재의 경우 문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20~30대의 친구들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설정은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3.3. 북경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재의 한국어 대우표현 비교 분석

대우표현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그 체계가 복잡하여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또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모어의 영향으로 의식 속에 타인에 대한 언어적인 대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대우표현의 교육은 항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교재의 어휘 항목의 제시를 비교하여 보자.

<표18> 두 교재에 제시된 어휘 항목 제시

북경대학교 교재		연세대학교 교재	
1권	저, 제, 씨, 그분/저분, 계시다 드리다, 이분, 말씀하다, 님, 들다 주무시다, 저희, 뵙다, 말씀, 분 여쭙다, 생신	1-1권	씨, 저, 제, 계시다, 드시다, 말씀하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리다
2권	주무시다, 뵙다, 연세, 여쭙다, 모 시다, 뵈다, 당신, 댁	1-2권	
3권	돌아가시다	2-1권	말씀, 뵙다
4권		2-2권	

이 두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를 보면 북경대학교의 교재는 주체대우표현에 쓰이는 어휘와 객체대우표현에 쓰이는 어휘를 거의 모두 제시하였고,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주체대우표현에 쓰이는 어휘를 위주로 제시하였다. 어휘의 설명에 있어서는 북경대학교의 교재는 ‘새로운 단어’로 의미 해석을 한 것이 거의 전부이고, 본문이나 연습, 문법 설명 등 부분에서는 몇 개의 어휘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어휘를 제시할 때 그것이 대우표현의 어휘 항목임을 명시하였고, 또 그 어휘들을 활용하는 연습문제를 난이도에 따라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북경대학교의 교재에 비해 학습자들이 쉽게 상황에 따른 대우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교재에 제시된 대우표현의 어휘 수를 볼 때, 연세대학교의 교재가 북경대학교의 교재에 비해 제시된 어휘의 수는 적으나, 제시방법이 체계적이고 제시목적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좀 더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교재에 제시된 대우표현의 어휘를 비교해 볼 때, 대우표현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북경대학교의 교재보다 연세대학교의 교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표19> 두 교재에 제시된 문법 항목 제시

북경대학교 교재		연세대학교 교재	
1권	-됩니다/-습니다 -됩니다/-습니까 -입니다/-입니까 -(으)시-, -십시오/-으십시오 -세요/-으세요 -아요/-어요/-여요 -예요/-이에요/-예요 -께서, -께	1-1권	-입니다, 입니까? -습니까?/됩니다? -습니다/됩니다 -(으)시-, 께서 -읍시다/되시다 -아요/-어요/-여요 -으세요/세요, -지요?
2권	-요, -군요/-는군요 -아/-어/-여 -받시다/-읍시다	1-2권	-께, -는군요/군요
3권		2-1권	-는다/니다/다 -니? -어라/아라/여라, -자
4권	-받시다/-으받시다	2-2권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를 볼 때 1권에서는 모두 청자대우표현의 합쇼체, 주체대우표현, 청자대우표현의 해요체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 단계부터 두 교재의 제시가 다른데 2권에서 북경대학교의 경우는 해요체와 해체를,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해요체만 제시하였고, 그 뒤로는 북경대학교는 새로운 화계의 제시가 없는 반면 연세대학교는 해라체와 해체가 제시된다. 해체는 친구들 사이나 친한 후배한테 많이 사용되는 화법으로 한국어 초급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표에서 두 교재에서 제시한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학습자들에게 대우표현이라는 문법 범주를 인식시켜 활용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까지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재의 모든 부분에서 그 활용방법을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세대학교의 교재는 학습자들에게 대우표현이라는 문법 범주에서 대우표현들을 단계별로 난이도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활용방법에서도 단순 연습과 유의미적 연습을 적절히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알고 대우표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용어의 선택이나 학습자의 모어로 된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모어를 염두에 둔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대우표현의 사용 조사 및 오류 분석

사람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학습할 때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목표어의 언어규칙과 원리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모어의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간섭현상이라고 한다. 학습자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어 간의 간섭현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¹⁶⁾. 중국인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데 본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실현하면서 주로 어떤 오류들을 범하는지를 알아보고, 오류 양상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한국의 국어국문학과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 36명에게 설문지를 통해 대우표현 관련 문항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유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국어국문학과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은 대체로 중국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일정 기간 학습하였고, 또 중국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내 여러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내지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자료의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하나는 중국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정보 입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대우표현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대우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와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등 사회적인 변인을 고려하

16) 박진호(2011), 「대조언어학」,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1』, 413쪽.

여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대우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4.1. 조사 내용의 분석 및 오류 판정

설문조사의 내용은 먼저 설문 조사 대상자의 학습 수준을 체크하고, 중국내에서 한국어가 어떤 교재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런 학습 하에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대우표현을 습득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국에서의 학습 실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1>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대학교 정규과정이 30명으로 제일 많았고, 처음부터 한국유학으로 한국어를 처음 접한 학생이 3명이며, 자력으로 공부한 학생이 3명이었다.

<질문1> 귀하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과정	대학교 정규과정	한국 유학	자력
인수	30 명	3 명	3 명

<질문2>~<질문5>은 학습자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재로 얼마동안 한국어로 학습하였으며 학습결과 수준등급은 어떠한지를 체크하는 문항이었다.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2> 귀하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얼마동안 배우셨습니까?

기간	2년 미만	2년~3년	3년 이상
인수	4 명	29 명	3 명

<질문3> 귀하는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어느 단계까지 공부하셨습니까?

단계	초급	중급	고급
인수	1 명	28 명	7 명

<질문5> 한국어 문법교육을 어떤 경로로 받으셨습니까?¹⁷⁾

단계	대학교 정규	사설 교육	인터넷	한국 유학
인수	35 명	2 명	1 명	1 명

조사 결과 학습기간은 2년 미만이 4명, 2~3년이 29명, 3년 이상이 3명이었으며, 학습자 수준 단계는 초급이라고 답한 자가 1명, 중급이 28명, 고급이 7명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교의 교재로 학습한 학생은 14명이고, 연변대학교의 교재로 학습한 학생은 1명이며, 연세대학교의 교재로 학습한 학생이 7명이고, 서울대학교 교재로 학습한 학생이 3명이며, 기타 교재로 학습한 학생은 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어의 문법교육을 대학교 정규과정에서 학습한 학생이 35명이고, 사설 교육으로 받은 학생은 2명이며,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매체와 유학을 통하여 학습한 학생이 각 1명이었다. 조사 결과 피조사자들은 대부분 대학교의 한국어학과에서, 북경대학교의 『한국어(韓國語)』 교재로 공부하였다. 북경대학교의 교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급과정 교재는 총 4권으로 2년간 수업을 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피조사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2~3년이 29명으로 전체 학습자의 80%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들의 수준 등급

17) 두 학생이 두 항목, 세 항목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인수가 설문에 참가한 인수보다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을 중급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다음은 피조사자의 한국어 문법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것이다.

<질문6> 중국에서 받았던 한국어 문법교육이 현재 유학 시 문법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단계	90%이상	80%~90%	60%~80%	60%이하
인수	3 명	12 명	17 명	4 명

이 문항은 모국에서 중급까지 학습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한국어 문법 수업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조사 결과 90%이상이 3명, 80%~90%가 12명, 60%~80%가 17명, 60%이하가 4명이었다.

<질문7>과<질문8>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대우표현의 학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질문7> 중국에서 ‘경어법’ 혹은 ‘대우법’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¹⁸⁾

항목	경어법 만	모두 예	모두 아니요	무응답
인수	14 명	12 명	9 명	1 명

<질문7-1> 들어봤다면 어떤 경로로 들어보셨습니까?

경로	대학교 정규	학원 수업	미디어 매체	기타 ¹⁹⁾
인수	20 명	2 명	3 명	11 명

18) 설문조사에서는 ‘대우법’이나 ‘대우표현’이란 용어의 분별보다는 ‘대우’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어법’이라는 용어와 대립하여 ‘대우법’이라는 용어로 설문을 하였다.

19) 1번에서 ‘아니요’라고 답한 자가 선택한 답은 성실성이 없는 답으로 간주하고 답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기타’항목으로 묶었다.

<질문8> ‘경어법(敬語法)’과 ‘대우법(待遇法)’이 무슨 뜻일 거라고 예상되니까?

	용어를 이해한 답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답변	무응답
경어법	31 명	1 명	4 명
대우법	15 명	8 명	13 명

조사 결과 피조사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의 대학교 수업에서 ‘경어법’과 ‘대우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으며, ‘경어법’을 들어본 학생은 모두 26명이었고, ‘대우법’을 들어본 학생은 모두 12명이었다. ‘경어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31명의 학습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대우법’은 의미를 알고 있는 학습자가 15명으로 경어법을 알고 있는 학생 수의 절반밖에 안되었다.

4.2. 피조사자의 한국어 대우표현 사용상 오류 분석

다음으로는 한국어 대우표현의 습득 정도를 체크하기 위한 조사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문법형태소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를 문법형태소가 발달된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주요하게 학습자들이 청자대우를 반영하여, 종결어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인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설정하였다. 피조사자들은 설정된 상황에 맞는 대우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학습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대우표현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사용한다면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지,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오류들을 어떻게 범하는지 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분석하여 오류의 원인을 찾아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자의 신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우표현을 사용하는지, 또 청자의 신분이 정해졌을 때에는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명의 피조사자 여러 개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것을 각각으로 계산하였다. 설문조사에 제시한 문항들을 아래 표와 같다.

<표20> 첫 번째 설문조사 문항

문항1	来了?
문항2	吃吧.
문항3	睡吧.
문항4	我带你去.
문항5	爷爷, 爸爸在吃饭.

위의 표에서 <문항1-3>은 발화상황을 피조사자가 임의로 설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장들은 주체대우와 청자대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항1>의 경우 청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왔니?, 왔어?, 왔어요?, 왔습니까?’로 번역할 수 있고, 주체대우를 실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오셨니?, 오셨어?, 오셨어요?, 오셨습니까?’로 번역할 수 있다. <문항4>는 객체대우와 청자대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종결어미는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객체대우의 실현에서도 평대의 ‘데리다’와 존대의 ‘모시다’를 모두 사

용할 수 있다. <문항5>는 압존법을 사용해야 하는 문항인데 중국어의 경우 압존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매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번 문항에서는 중국어에는 없는 대우표현을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각 문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자.

<문항1> 来了?

‘来了?’는 서술어의 주체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학습자들은 스스로 서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체대우를 실현해야 하며, 적절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의문형 문장으로 번역해야 한다. 조사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문항1 통계

화계	예문	답변수	답변율
하십시오체	왔습니까?	1	3%
해요체	왔어요? , 오셨어요?	13	33%
해체	왔어?	23	59%
해라체	왔니?	1	3%
무응답		1	3%
합 계		39	100%

조사 결과 ‘해체’로 답한 학생이 23명으로 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요체’로 답한 학생은 13명으로 33%차지하였으며,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로 답한 학생은 각각 1명씩 있었다. 그리고 답하지 못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의 문장의 종결 방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문장을 위에 제시했던 바와 같이 ‘呢, 了, 吧, 吗……’ 등 몇몇 조사나, <문항4>나 <문항5>에서처럼 단어로 문장

을 종결한다. 중국어의 이런 종결방식은 한국어의 청자대우의 종결어미 화계 중에서 ‘해체’와 가장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청자를 잘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중국어의 표현방법과 유사한 ‘해체’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듯하다.

<문항2> 吃吧.

중국어의 ‘吃吧’는 화자가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청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종결어미 외에도 ‘먹다’의 높임 표현인 ‘드시다’의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표22> 문항2 통계

화계	예문	답변수	답변율
하십시오체	먹읍시다	2	5%
해요체	먹어요	8	20%
	드세요	3	8%
해체	먹어, 먹자	23	59%
해라체	먹어라	2	5%
무응답		1	3%
합계		39	100%

조사 결과 ‘해체’로 답한 학생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답의 5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해요체’로 답한 학생이 11명에 28% 이었고, ‘하십시오체’와 ‘해라체’가 각각 2명으로 5%를 차지하였으며, 답을 하지 않은 학생이 1명 있었다. 종결어미의 용법에서는 위의 <문항1>과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특수 어휘의 용법으로 평대의 ‘먹다’를 존대의 ‘들다, 드시다’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같은 의미의 어휘도 평대의 경우와 존대의 경우 전혀 다른 형태

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어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특히 청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드시다’의 표현보다 ‘먹다’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항3> 睡吧.

중국어 ‘睡吧’는 화자가 다양한 대상에게 사용하여 명령이나 청유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항도 종결어미 외에 특수 어휘 ‘주무시다’의 활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표23> 문항3 통계

화계	예문	답변수	답변율
하십시오체	잡시다	1	3%
해요체	자요, 자세요	12	31%
	주무세요	2	5%
해체	자, 자자	21	55%
해라체	자라	1	3%
무응답		1	3%
합 계		38	100%

조사 결과 ‘해체’로 답한 학생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요체’로 답한 학생은 14명이었다. ‘해요체’로 답한 14명 중에서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활용한 학생이 2명이었고, ‘하십시오체’와 ‘해라체’, 무응답이 각각 1명씩 나왔다. 이번 문항도 앞의 두 문항에서와 같이 청자대우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자다’의 높임 표현인 ‘주무시다’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

<문항4> 我帶你去.

이 문항에서는 1인칭 겸양 ‘저/제’, 객체 높임과 관련된 어휘 ‘모시다’의 사용 양상, 청자대우의 종결어미 사용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표24> 문항4 통계

화계	예문	답변수	답변율
하십시오체	데리고 가 드리겠습니다.	1	3%
해요체	제가 데리고 갈게요.	17	47%
해체	내가 데려 갈게.	13	36%
해라체	난 너에게 데려간다.	2	6%
무응답		3	8%
합 계		36	100%

이번 문항에서는 ‘해요체’로 답한 학생이 17명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 순으로 ‘해체’로 답한 학생이 13명이었으며, ‘해라체’로 답한 학생이 2명, ‘하십시오체’로 답한 학생이 1명이었다. 이번 문항에서 답을 하지 못한 학생은 3명이었고, 1인칭 겸양을 사용한 응답은 10명이었으며, 특수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표현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번 문항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어에서는 ‘나’라는 표현보다 ‘저’혹은 ‘제’라는 자기 겸양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번 문항에서는 ‘해체’에 비해 ‘해요체’가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자기 겸양의 영향으로 타인에 대한 높임을 생각하고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한 것 같다. 그리고 ‘데리다’의 높임 표현인 ‘모시다’는 학습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도 앞의 문항들과 같이 ‘데리다’의 높임표현을 따로 습득되지 않은데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

<문항5> 爷爷, 爸爸在吃饭.

이 문항은 압존법과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25> 문항5 통계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답	하십시오체	할아버지, 아버지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2	6%
	해요체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5	14%
오류	압존법	할아버지, 아빠가 진지 드시고 있어요.	25	69%
	종결어미	할아버지, 아버지는 밥을 먹고 있다.	3	8%
무응답			1	3%
합 계			36	100%

조사 결과 압존법을 정확하게 표현한 학생은 7명으로 정확도는 20%밖에 안 되며, 그중 ‘하십시오체’로 답한 학생이 2명, ‘해요체’로 답한 학생은 5명이었다. 이번 문항에서는 총 28명 학생들이 77%의 오류율을 산출하였으며, 오류 중에서 압존법 오류가 25명으로 69%, 종결어미 오류가 3명으로 8%차지하였다. 그리고 답을 하지 않은 학생이 1명으로 3%를 차지하였다. 중국어에는 타인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방식도 한국어처럼 복잡하지 않을뿐더러 압존법과 같은 대우방식은 아예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대우표현보다도 압존법을 더 어려워하며,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위의 표에 제시된 예문과 같이 ‘아빠’와 ‘할아버지’가 모두 상위자이므로 모두 높여서 대우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오류이긴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어에는 없는 표현방법이고 또 청자와 화제의 인물이 화자와의 대비에서만 대우방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 화제의 인물 사이의 상하관계도 고려하여 대우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쉽게 헛갈리고 습득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압존법 교육에서도 좀 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이상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은 종결어미가 짧은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해요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항1~4까지의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표26> 종결어미 사용 양상 통계

화계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무응답	총 문항
답변수	5	55	80	6	6	149
답변율	3%	36%	53%	4%	4%	100%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학교 수업 외에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하는 경로는 미디어 매체를 통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인데 수적인 통계를 하지 않아도 가장 많이 들리는 종결어미는 ‘해요체’이다. 실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종결어미는 ‘해요체’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청자대우의 종결어미로는 ‘해요체’라고 본다.

다음 이번 조사에서 특수 어휘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7> 특수 어휘 사용 양상

항목	드시다	주무시다	저, 제	모시다
참여 문항	39	38	36	36
답변 문항	3	2	10	0
답변율	8%	5%	28%	0%

20) <문항5>는 상황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사용양상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기 겸양이나 ‘모시다’, ‘들다’, ‘주무시다’와 같은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형태소의 활용에도 매우 서툴다.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중국어에는 객체대우가 없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평대냐 존대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어휘를 쓴다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으며, 또 쉽게 헛갈리어 더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대우표현의 교육에서 객체대우의 표현방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다음으로 대우표현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여부 등 사회적 변인에 따른 상황을 아래 표²¹⁾에서와 같이 설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한국어 대우표현을 어떻게 발화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28> 대우표현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

사회적 변인	관계	표기
상하관계	상위	>
	동등	=
	하위	<
친소관계	친밀	친
	소원	소
공식성 유무	유	+
	무	-

관련 문항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류는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였다. 한 부류의 오류는 설정한 상황에 의미가 닿는 답변이지만 대우표현을 잘못 사용한 오류로 ‘오류1’로 설정하였으며, 다른 한 부류의 오류는

21) 허봉자 (2008: 95)참고

상황을 설정한 의도와는 전혀 연관성이 닿지 않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답변으로 ‘오류2’로 설정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예문은 해당 상황을 예를 들어 제시하기 위한 예문이다. 특히 ‘오류1’과 ‘오류2’에 제시된 예문은 해당 문법항목에서 나타난 예문 중 하나로 모든 답변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상황설정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오류1로 분류된 몇몇 예문들은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통계한 수치 또한 완전히 유의미한 통계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29> 두 번째 설문조사 문항

상황1	당신이 할아버지께 식사하라고 말할 때
상황2	선생님이 당신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릴 때
상황3	엄마가 당신에게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상황4	당신이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없을 때
상황5	친구 현수에게 책을 빌릴 때
상황6	학회에서 당신은 사회자입니다. 친한 후배인 수진이가 발표할 차례일 때
상황7	학회가 끝나고 회식할 때 당신이 수진이가 고생했다고 말할 때

위의 표에서와 같이 두 번째 설문조사 항목에서는 상황을 설정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해당 상황에서의 대우표현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설문상황에는 화자와 청자, 화제의 인물간의 다양한 관계와 발화 환경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이런 상황에서의 여러 인물들 간의 관계를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할 경우 어떤 오류들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래 설문조사한 상황별 문항들을 <상황1>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

<상황1> “당신이 할아버지께 식사하라고 말할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청자 > 화자	친	-	높임 어휘, 선어말어미 -(으)시-, 종결어미

<표30> 상황1의 학습자 답변 실태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진지를 드십시오, 식사하세요.	24	67%	
오류	오류1	식사를 드시다. 진지를 드시세요	9	25%
	오류2	몸이 좋아요?	3	8%
합 계		36	100%	

이번 문항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 학습자는 총 24명으로 정확도가 67%되며, 총 산출된 오류는 33%로 12명의 학생이 오류를 범하였다. 오류 중에서 오류1을 범한 학습자는 9명으로 총 답변의 25%를 차지하고, 오류2는 3명의 학습자가 8%의 오류를 산출하였다. ‘오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1> 상황1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 문	오류 수	오류 율
높임 어휘	진지를 하십시오.	3	33%
선어말어미	진지를 드시세요.	1	11%
종결 어미	식사를 드시다.	5	56%
합 계		9	100%

오류1을 분석하여 보면 높임 어휘의 오류는 상위자인 ‘할아버지’에 대하여 ‘진지’라는 높임 명사에 특수 동사 ‘드시다’를 사용해야 하는 데 일반 동사 ‘하다’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전체 오류의 33%를 차지하였다. 선어말어미 오류에는 또 ‘진지를 드시세요’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

데, 이처럼 선어말어미를 중복하여 사용한 오류로 11%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종결어미 오사용의 오류로 이번 문항에서 청자는 ‘할아버지’이므로 높임 의미의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하는 데, 화자는 평서형 ‘해체’를 사용하여 ‘드시다’로 표현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번 문항에서는 종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오류의 56%를 차지하였다.

<상황2> “선생님이 당신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릴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화제인물 > 청자 > 화자	친	-	어휘, 선어말어미 -(으)시-, 종결어미

이번 문항에서 청자와 서술의 주체는 모두 화자보다 상위자이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서는 화자는 청자대우표현과 주체대우표현의 높임 표현을 실현해야 한다.

<표32> 상황2에 대한 학습자 답변 실태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9	22%
오류	오류1 어머니, 선생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올 겁니다.	23	67%
	오류2 어머니, 선생님께서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4	11%
합 계		36	100%

위의 표에서 <상황2>의 답변 실태를 보면 정확한 답변은 9명으로 총 답변의 22%를 차지하고, 오류는 27명으로 총 답변의 78% 차지한다. 오류 중에서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한 피조사자는 23명이고,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한 답을 한 피조사자는 4명이었다. 이번 문항은 질문 자체가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조사자

들은 상황에 대한 발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질문을 잘못 이해하여 더욱 많은 오류를 산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의 오류통계는 실제 이 상황에 대한 학습자들의 발화 오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33> 상황2의 ‘오류1’ 분석²²⁾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높임 어휘	어머니, 선생님께서는 우리 <u>택</u> 방문할겁니다.	14	61%
선어말어미 ‘-(으)시-’	어머니, 선생님께서는 우리 집에 <u>올</u> 겁니다.	9	39%
합 계		23	100%

이번 문항에서는 높임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면 ‘우리 집’으로 표현해야 하는 데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우리 택’으로 표현한 오류가 있다. 이런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답한 학습자는 14명으로 전체오류의 61%나 차지하였다. 이런 오류는 학습자들이 청자인 ‘어머니’가 자신에 비해 상위자라는 것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집’이 곧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는 높여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습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인 것 같다. 다음 선어말어미의 오류인데 이번 문항에서 문장의 주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으)시-’로 ‘선생님’의 행위를 높여야 하는 데 그리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오류는 모두 9명으로 39%를 차지하였다.

<상황3> “엄마가 당신에게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화제인물 > 화자 > 청자	친	-	특수 어휘, 종결어미

22) 이번 문항은 상황설정에서 공식성이 없고, 친소관계가 ‘친’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사용에서 ‘해요체’가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하십시오체’의 경우가 12개 나타났다, 오류로 볼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하십시오체’ 오류로 보는 데에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문제는 청자가 화자에 비해 하위자이고 화제의 인물이 청자보다 상위자이므로 낮춤 표현의 청자대우와 높임 표현의 객체대우를 실현해야 한다.

<표34> 상황3의 학습자 답변 실태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영희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6	17%
오류	오류1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	19	53%
	오류2	영희야, 가서 할머니에게 왔어요.	11	30%
합 계			36	100%

이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정확한 대우표현을 사용한 학생은 17%로 총 6명이었고, 총 오류는 83%로 30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답을 못하거나 상황과 전혀 다르게 대답한 학생은 30%로 11명이었으며, 예문을 살펴보면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와요’와 같이 ‘할머니’에 대한 높임 표현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하위자인 ‘영희’에 ‘...와요’와 같이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오류가 53%로 19명이 있었다. 아래 원인 분석이 가능한 오류1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35> 상황3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높임 어휘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u>데리</u> 고 오라.	13	46%
높임 격조사	영희야, 가서 할머니 <u>께서</u> 모셔. 영희야, 가서 할머니 <u>께</u> 모셔와.	5	18%
종결어미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u>와요</u> .	10	36%
합 계		28	100%

우선 오류1에서의 오류 합계는 위의 ‘학습자 답변 실태’에서의 오류1의 수와 일치하지 않다. 그 원인은 위의 ‘학습자 답변 실태’는 문항 수를 제시한 것으로 피조사자의 수와 같다. 그러나 ‘오류1 분석’에서의 오류는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오류를 각각의 횟수로 계산하여 총 오류 수에 합산하였다. 예를 들면 위 표에서 종결어미 부분에서의 오류 예문 ‘영희야,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와요’를 보면 ‘학습자 답변 실태’에서는 이것을 한 개로 계산하였지만 ‘오류1 분석’에서는 이 문장의 오류를 ‘데리고’라는 높임 어휘의 오류와 ‘-요’라는 종결어미 오류를 각각으로 계산하여 오류의 개수를 두 개로 보았다. 이 때문에 ‘오류1 분석’에서의 오류 수는 ‘학습자 답변 실태’에서의 오류 수 보다 같거나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하 문항들의 ‘오류1 분석’에서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오류1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화제의 대상인 ‘할머니’에 대하여 ‘모시다’를 사용하지 않고 ‘데리다’를 사용한 오류는 총 오류의 43%로 13명이 해당 오류를 산출하였으며, 하위자인 청자에 대하여 ‘...와요’와 같이 높임의 종결어미를 사용한 오류는 총 오류의 33%로 10명의 학습자가 이런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번 문항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에 대하여 높임의미를 나타내는 여격조사 ‘-께’와 주격조사 ‘-께서’를 잘못 사용한 오류도 총 오류의 17%로 5명의 학생이 이런 오류를 범하였다.

<상황4> “당신이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없을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화제인물 > 청자 > 화자	친	-	높임 어휘, 종결어미

이번 문항은 청자와 서술의 주체가 화자에 비해 모두 상위자이므로 높임의 청자 대우와 주체대우를 실현해야 한다.

<표36> 상황4의 학습자 답변 실태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엄마, 할머니께서 안 계셔요.	26	72%	
오류	오류1	엄마, 할머니가 집에 없어요.	5	14%
	오류2	엄마, 할머니 가는 중이에요.	5	14%
합 계		36	100%	

이번 문항에서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은 23개로 64%나 차지하며, 오류1이 9명으로 25%, 오류2가 4명으로 11%를 차지한다.

<표37> 상황4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높임 어휘	엄마, 할머니 집에 <u>없</u> 어요.	4	80%
높임 조사	엄마, 할머니 <u>께</u> 지금 안 계셔요.	1	20%
합 계		5	100%

오류1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는 화자나 청자에 비해 상위자이므로 ‘계시다’로 대우해 주어야 하는 데 그리하지 못하고 ‘없어요’로 대우한 오류가 4명으로 전체 오류의 80%를 차지한다. 조사를 오용한 경우도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께서’와 ‘-께’를 혼돈하였거나 ‘-께서’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산출된 오류인 것 같다. 이 문항에서는 ‘엄마, 할머니 덕에 안 계셔’와 같은 청자인 엄마에 대하여 ‘해체’를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발화 상황에 공식성이 없고 친한 관계임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발화라 생각하여 오류로 분류하지 않았다.

<상황5> “친구 현수에게 책을 빌릴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청자=화자	친/소	-	호격조사, 종결어미

<상황5>는 청자와 화자는 동급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친소관계에 따라 청자대우의 ‘해체’나 ‘해라체’, ‘해요체’ 등 다양한 화계의 표현으로 대우할 수 있다.

<표38> 상황5의 학습자 답변 실태

분류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현수야, 책 좀 빌려 줘	24	67%
오류	오류1	현수 책을 빌려 주시세요.	3	8%
	오류2	현수는 현수에게 책을 빌립니다.	9	25%
합 계			36	100%

이번 문항에서 정확하게 발화한 학생은 24명으로 67%를 차지하며, 오류1을 범한 학생은 3명으로 전체 문항의 8%를 차지하며, 오류2를 범한 학생은 9명으로 전체 문항의 25%를 차지하였다.

<표39> 상황5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선어말어미	현수 책을 빌려 주시세요.	3	100%
합 계		3	100%

위의 표에서 보면 이번 문항은 선어말어미 오류만 나타났다. 표에서 제시된 예문과 같이 선어말어미 ‘-(으)시-’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와 ‘주세요’와 같은 표현으로 친하지 않는 친구사이라도 너무 높게 대우하여 본고에서는 오류로 보았다.

<상황6> “학회에서 당신은 사회자입니다. 친한 후배인 수진이가 발표할 차례일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청자 > 화자 > 화제의 인물	친	+	의존명사, 종결어미

이번 문항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화로 청자가 화자의 친한 후배이지만 화자는 청자대우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40> 상황6의 학습자 답변 실태

		예 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다음으로는 김수진 씨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9	25%
오류	오류1	다음으로는 김수진 발표할게요.	18	50%
	오류2	무응답	9	25%
합 계			36	100%

이 문항은 정확하게 대답한 학생은 9명으로 참가 인수의 25%를 차지하며, 오류의 답변이 27항으로 75%나 차지한다. 오류 중에서 답을 아예 하지 못한 학생이 무려 9명으로 25%를 차지한다.

<표41> 상황6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종결어미	다음으로는 김수진 발표할 거예요	7	29%
의존명사	다음으로는 김수진 발표하겠습니다.	17	71%
합 계		24	100%

이번 문항의 오류1을 살펴보면 우선 종결어미 사용의 오류가 7명으로 전체 오류의 29%를 차지하였는데, 이 오류는 공적인 자리인데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 않고 ‘해요체’로 청자를 대우한 것이다. 다음 오류는 친한 후배인 화제의 인물에 대한 지칭 오류인데 총 17명의 학생이 71%의 오

류를 발생하였으며, 공적인 자리이므로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후배이지만 ‘김수진 씨가….’나 ‘김수진 선생이….’로 대우하여 표현하여야 자연스러운데 많은 학습자들은 성함 뒤에 아무런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황7> “학회가 끝나고 회식할 때 당신이 수진이가 고생했다고 말할 때”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성	조사 항목
상황설정	화자 > 청자	친	-	호칭어, 종결어미

이번 문항은 <상황6>의 연속으로 상하관계와 친소관계는 그대로 두고 공식성만 무로 설정하였다. 비공식적인 발화 환경에서 친한 선후배 사이이므로 선배인 화자는 후배인 청자에 대하여 ‘수진아, 오늘 고생 많았어.’와 같이 ‘해체’를 사용하여 대우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수진아, 오늘 수고 많았다.’와 같이 ‘해라체’를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42> 상황7의 학습자 답변 실태

		예문	답변수	답변율
정확한 답변		수진아, 고생했어.	8	22%
오류	오류1	수고하셨습니다.	18	50%
	오류2	너무 고생해서 죄송해요	10	28%
합 계			36	100%

이번 문제는 정확한 답을 한 학생과 오류를 범한 학생 수가 각각 18명으로, 각각 참여한 학생의 50%를 차지한다. 그중 오류1은 10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오류2는 8명으로 22%를 차지한다.

<표43> 상황7의 오류1 분석

분석 항목	예문	답변수	답변율
종결어미	수고하 <u>셨</u> 습니다. / 고생했 <u>어</u> 요.	17	71%
선어말어미	수진이, 수고하 <u>셨</u> 어요.	7	29%
합 계		24	100%

이번 문항의 오류1을 분석하여 보면, 종결어미에 의한 오류가 17명으로 전체 오류의 71%를 차지하며, 대체로 높임표현을 ‘하십시오체’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다른 오류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였는데, 위의 표에 제시된 예문에서와 같이 ‘수고하셨어요.’처럼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한 오류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오류는 화자가 대우표현의 높임 표현에 대한 강압적인 인식으로 과잉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7문항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정 상황에서의 대우표현의 실현의 오류양상을 살펴보았다.

<표44> 상황1~7 대우표현 오류 분석 통계

항목별 오류	오류1				오류2	합 계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조사		
상황 1	3	1	5		3	12
상황 2	14	9			4	27
상황 3	13		10	5	11	39
상황 4	4			1	5	10
상황 5		3			9	12
상황 6	17		7		9	33
상황 7		7	17		10	34
합 계	51	20	39	6	51	167
오류율	31%	12%	23%	4%	31%	100%

위의 표로부터 상황을 설정한 7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오류 수는 167개인데, 오류1은 116개로 전체 오류의 69%를 차지하고 오류2는 51개로 31%를 차지한다. 어휘형태소의 오류는 전체 오류의 31%를 차지하고, 문법형태소의 오류는 전체 오류의 39%로 어휘형태소보다 더 많은 오류를 산출하고 있었다. 문법형태소의 오류 중에서 종결어미의 오류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어말어미의 오류가 12%, 조사 오류가 4%를 차지하였다. 이상 오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45> 각 항목별 오류 순위

항 목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조사
오류율	31%	23%	12%	4%
오류 순위	1위	2위	3위	4위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목별 오류 순위에서 어휘의 오류가 가장 많다는 것은 객체대우표현 오류가 1위로 제일 많다는 것이며, 그 다음 2위인 종결어미의 오류는 청자대우표현 오류로 볼 수 있다. 3위인 선어말어미의 오류는 주체대우표현 오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학습하면서 어려워하는 난이도의 순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 두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황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체’를 많이 사용하며, 상황이 설정된 경우에는 종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종결어미의 역할을 하는 어기조사가 몇 개 있으나 대체로 단일 형태소로 구성되어 형태가 아주 간단하고, 문형만 나타낼 뿐 청자에 대한 대우는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모어의 영향으로 문장의 끝이 짧은 해체를 쉽게 습득하며 또 선호한다. 상황이 설정 되었을 경

우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한국어의 다양한 종결어미로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기며 쉽게 헛갈리어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드시세요’와 같은 과잉 반응이 대우표현에 대한 심리부담감으로 인한 전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을 반영하여 다음 장에서는 북경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중국내 학교들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하여 한국어의 대우표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에서의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였다. 이상 논의의 결과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대우표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대우표현을 어떻게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학습 현장에서의 학습자들에 대한 대우표현 교육 방안을 교수 지도안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5.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대우표현 개선 방안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목표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교재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교재는 교수와 학습의 매개체이며 제일 중요한 보조 자료이다. 마찬가지로 대우표현의 실현방법도 학습자들은 1차적으로 교재를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상황들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앞서 3장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살펴 보았지만 현재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특히 대우표현 체계에 대한 제시 순서가 잘 기술

되어 있지 않고, 학습자들의 학습수준 단계에 따른 제시항목의 설정 또한 미흡하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시된 대우 항목에 대한 습득과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대우항목은 접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3장에서의 문제점과 4장에서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대우표현의 주체대우, 객체대우, 청자대우의 삼분체계의 제시 순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 초급과정을 총 4권으로 구성하고, 매권에서 제시하려는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를 항목을 제안한다. 그다음, 구체적인 대우표현의 실현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래 각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대우체계의 제시 순서에 대한 개선 방안.

(1) 청자대우표현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활용도가 큰 ‘해요체’부터 제시한다. 3장에서 분석한 두 교재는 ‘하십시오체’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다음으로 ‘해요체’가 제시된다. 그러나 허봉자(2008)²³⁾에서 진행한 한국인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같은 상황을 설정하였을 때 한국어가 모어인 화자들은 ‘하십시오체’에 비해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공적인 자리보다 사적인 자리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화계의 설정에 있어서도 대중적인 ‘해요체’의 교육을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흥미유발에도 도움이 된다. ‘하십시오체’는 ‘해요체’를 제시하고 충분한 연습을 한 이후에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2권에서는 해요체의 여러 형태의 종결어미를 제시하고 연습하며, ‘하십시오체’도 좀 더 연습을 하는

23) 허봉자(2008), 116~150쪽.

것이 이 두 화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체’는 거의 형태가 ‘해요체’에서 ‘-요’만 뺀 형태이고 또 바로 아래 단계의 화계이기 때문에 3권에서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습득하기에 보다 쉬울 것 같다. ‘해라체’는 동년배나 친구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계로 4권 정도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하계체와 하오체는 고급단계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교육하면 될 것이다.

‘해요체’의 제시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외국어의 학습에 있어서 첫 본문은 거의 기본 인사로 시작된다. 한국어의 경우도 그러한데 예전에는 ‘안녕하십니까?’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은 ‘안녕하세요.’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해요체’의 경우는 문형에 따라 종결어미의 형태가 다양하다. 이를테면, ‘안녕하세요.’의 경우와 ‘좋아요’, ‘학생이에요.’, ‘소풍가요’ 등을 보면 직관적으로는 다 다르게 보인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요체’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하십시오체’의 뒤에 제시되었는데, ‘해요체’의 다양한 형태는 학습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법 설명과 단계별 연습문제를 잘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헛갈리지 않고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연세대학교의 1-1-1을 예로 제시해 보자.

<표46>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 개선안

1-1-1	연세대학교 교재 제시	개선안 제시
리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웨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에	리에 입니다.	리에 이에요.
웨이	저는 웨이입니다.	저는 웨이 이에요

연세대학교의 1-1-1에서 제시된 대우항목이 ‘입니다’이라면, ‘해요체’로 바꾼 경우 ‘이에요’로 제시하면 된다. 중국어의 의미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 설명은 앞서 교재분석에서 제시한 제안에 격식체 여부만 수정하여 주면 된다. 북경대학교의 교재도 1-1에서는 인사말로 ‘하십시오체’를 제시하였는데 위의 개선안처럼 종결어미만 바꾸면 될 것이다.

<표47> ‘이에요’에 대한 교재 내용 개선안

	교재 내용 개선안	한국어 번역
이에요	接在体言后面, 用于需要对听者表示尊敬的情况, 是非格式体。“이에요”表示叙述, 相当于汉语的“是……”.	체언의 뒤에 붙어 청자를 높여서 대우할 때 쓰이며 비격식체이다. ‘이에요’는 서술형이며 중국어의 ‘是……’와 같다.

‘해요체’의 다른 문형도 다음 과에서 하나씩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과 연습을 하여 학습자들이 잘 습득한다면 ‘해요체’를 ‘하십시오체’보다 먼저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초급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모어로 번역하여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위에서도 제시했듯이 ‘입니다’와 ‘이에요’는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모두 ‘是…’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해요체’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2) 객체대우에 쓰이는 어휘는 중급에서 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어휘를 제시한다. 중국어는 객체에 대한 높임표현이 없으므로 객체대우에 실현되는 어휘를 매우 어렵게 느낀다. 그러므로 객체대우를 실현하는 특수 어휘들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초급단계에서 대우표현에 많이 익숙해진 다음, 중급단계에서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주체대우를 실현하는 선어말어미 ‘-(으)시-’는 청자대우의 ‘해요체’를 제시한 이후 바로 제시한다. 선어말 어미 ‘-(으)시-’는 생산성이 아주 높다.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이면 바로 주체에 대한 높

임이 된다. 그러므로 주체에 대한 높임에서 일반 용언이 사용되는 문장에는 거의 ‘-(으)시-’로 그 높임표현의 대우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으)시-’는 생산성과 활용성이 높은 대우 항목으로 한국어 학습의 초급 1 단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주체대우표현과 객체대우표현, 청자대우표현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순서를 제안해 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8> 대우표현의 제시 순서 제안

등급 단계	제시할 대우표현 항목
초급 단계	청자대우의 ‘해요체’, 주체대우의 선어말어미 ‘-(으)시-’, 청자대우의 ‘하십시오체’, ‘해체’, ‘해라체’, 주체높임 어휘, 조사.
중급 단계	객체대우의 실현 어휘
고급 단계	청자대우의 ‘하오체’와 ‘하게체’

둘째, 초급 교재의 권별 대우표현 항목 제시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제시할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의 평가기준을 근거로,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대우항목 제시 순서를 개선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항목들을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해 본다.

<표49> 교재에 권별 제시할 구체적인 항목 제안

		기존 교재 제시	교재 제시 개선안
1권	어휘 항목	저, 제, 씨, 그분/저분, 계시다 드리다, 이분, 말씀하다 님, 들다, 주무시다 저희, 뵙다, 말씀, 분, 여쭙다, 생신	저, 제, 저희, 씨, 계시다 드리다, 말씀하다, 잡수다, 주무시다 생신, 님
	문법 항목	-(하)십니다, -(하)십니까? 입니다, 입니까?, -(으)시 -(으)십시오, -(으)세요 -아요/-어요/-여요 -예요, -이에요/-예요 -께서, -께	-(으)세요, -예요, -이에요/-예요 -아요/-어요/-여요 -(으)시, 께서, 입니다 입니까?, -(하)옵시다 -(하)십니다, -(하)십니까?
2권	어휘 항목	연세, 여쭙다, 모시다, 뵈다 당신, 댁	이분/그분/저분, 댁, 말씀 들다(드시다)
	문법 항목	-요, -(는)군요, -아/-어/-여 -하시다/-옵시다	께, 요, -는군요/군요 -지요?
3권	어휘 항목	돌아가시다	분, 뵙다
	문법 항목		-아/-어/-여, -자
4권	어휘 항목		돌아가시다, 모시다, 연세
	문법 항목	-(으)십시오	-어라/아라/여라, -니? -는다/는다/다

우선 1권에서 제시한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어휘형태소를 살펴보면 총 18개이다. 제시된 어휘 중에서 ‘이분/그분/저분, 분’과 같은 어휘들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3자 혹은 화제의 인물에 관련된 어휘이며, ‘떡다’의 높임 표현인 ‘들다’는 ‘드시다’로 형태가 바뀌어 쓰이기도 하고, ‘뵙다, 여쭙다’는 2인칭 청자에도 쓰이지만 청자와 화자를 제외한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서도 사용된다. 한국어 교재 1권의 경우 초급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학습내용을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고 2인 대화를 위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재 개선안에서는 ‘이분/그분/저분, 분’, ‘뵙다’, ‘여

쭈다'와 같은 어휘형태소는 학습할 내용으로 권장하지 않았다. 또 '들다'는 활용이 '잡수다'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선안에서는 '먹다'의 높임표현으로 '잡수다'를 제시하였다. 다음 문법형태소의 개선안을 살펴보면 대우표현의 항목에는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문법형태소의 개선은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제시 순서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2권의 개선안부터는 기존 교재에서 제시된 대우표현 항목보다는 1권의 개선안에서 제시된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항목들에 비추어 해당 교재에 제시 가능한 본문의 주제와 앞에서 제시했던 한국어 학습의 전반 단계에서의 대우표현의 제시 순서, 그리고 문법형태소의 경우는 청자대우의 6등급 종결어미의 제시 순서를 염두에 두고 제안하였다. 어휘부분에서는 제시항목의 난이도와 제시한 어휘의 양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절하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학습효과를 높이고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재에 제시할 대우표현 항목의 개선 방안.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의 '문법과 관용어(语法与惯用語)²⁴⁾' 부분에서 대우표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대우표현 익히기'로 이름을 지어 문법 설명을 한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대우 항목 중 몇 개를 선택하여 교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선해보면 다음과 같다.

24) 이 교재는 '본문', '새로운 단어', '어휘와 관용어', '문법과 관용어', '연습문제', '보충단어'의 순서로 한 과를 구성하였다.

[1-12] “대우표현 익히기”

<표50> ‘저’, ‘제’, ‘저희’ 의 교재 개선안

	기존 교재	개선안
항목	저, 제 [1-11]; 저희 [1-17]	저, 제, 저희 [1-12]
설명	저: [대] 나 제: [대] 대명사‘저’와 조사 ‘-가’가 붙으면 ‘저’가 ‘제’로 된다. 저희: [대] ‘우리’의 겸양표현	공통점: 모두 1인칭 겸양표현 저: [대] ‘나’의 겸양 표현 제: [대] ‘저’의 특수용법으로 뒤에 조사 ‘-가’가 오면 ‘제’로 되고 ‘-의’가 오면 ‘의’와 함께 ‘제’로 된다. 저희: [대] ‘우리’의 겸양 표현.
예문	저: 저는 이 치마가 마음에 듭니다. 제: 제가 왕한입니다. (본문) 저희: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세요.	저: 저는 학생이에요. 제: 제가 왕한이에요. / 제 책이에요. 저희: 저희 학교이에요.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저’, ‘제’와 ‘저희’는 서로 다른 과에 제시되어 있다. ‘저희’는 ‘저’의 복수형으로 난이도 부분에서는 ‘저’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학습자들의 습득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 교재에서 ‘저희’를 17과에서 제시한 것은 17과의 구성내용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교재의 경우 단계별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제로 교재가 구성되는데 어휘와 문법의 제시는 전적으로 본문의 내용에 따라 설정된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면, 이 세 어휘를 한 과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연습을 통하여 비교하여 습득할 수 있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1-13] “대우표현 익히기”

<표51> ‘-아요/-어요/-여요’의 교재 개선안

기존 교재	개선안
-아요/-어요/-여요 [1-17]	-아요/-어요/-여요 [1-13]
<p>☞ 설명 어기에 따라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을 만들며,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며,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p> <p>☞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ㅓ’인 용언 + ‘-아요’</p> <p>☞ 끝 음절이 모음이 ‘ㅏ, ㅓ’가 아닌 용언 ‘이다’, ‘-겠-’, ‘-(으)시-’, ‘-았-/-었-/-였-’ + ‘-어요’</p> <p>☞ ‘하다’ + ‘-여요’</p> <p>예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를 좀 사려고 왔어요. ▪ 빨리 읽어요. ▪ 오후에 도서관에 가요? ▪ 우리 내일부터 같이 운동해요. 	<p>☞ 설명 청자를 높여서 대우하는 종결어미로 비격식적인 언어 환경에서 평서, 명령, 의문, 청유를 나타낸다.</p> <p>☞ 결합:</p> <p>(1) ‘ㅏ, ㅓ’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는 ‘-아요’가 붙는다. * 예문 : 달다→달아요. 잡다→잡아요. * 불규칙 결합 :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두 가지 경우 ㄱ. ‘ㅏ’ + ‘-아요’→ ‘아’탈락; 예문: 가다→가아요→가요 ㄴ. ‘ㅓ’ + ‘-아요’ → ‘ㅏ’로 축약. 예문: 보다→보아요→봐요.</p> <p>(2) 그 외 용언의 어간에는 ‘-어요’가 붙는다. 예문 : 먹다→먹어요. 벌다→벌어요. 불규칙 결합 :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ㄱ. ‘ㅑ’ + ‘-어요’→ ‘어’탈락된다. 예문 : 서다→서어요→서요 ㄴ. ‘ㅓ’ + ‘-어요’ → ‘ㅑ’로 축약된다. 예문 : 배우다→배우어요→배워요. ㄷ. ‘ㅣ’ + ‘-어요’ → ‘ㅑ’로 변한다. 예문 : 버리다→버리어요→버려요.</p> <p>(3) ‘하다’ + ‘-여요’ 예문 : 하다 → 하여요 → 해요</p>

위의 표에서 보면 기존 교재의 설명이 엄밀하지 않다. ‘-아요/-어요/-여요’의 경우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야 하는데, 그냥 용언에 결합한다고만 되어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오류를 수정하여 용언의 어간에 접속한다고 제시하였고, 추가로 용언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축약과 탈락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 선어말 어미와 ‘이다’를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예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문은 없었으며, 관련 연습도 없었다. 이런 경우 학습자들이 ‘-아요/-어요/-여요’의 활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본 개선안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양을 고려하여 1-13과에서는 ‘-아요/-어요/-여요’가 ‘이다’와 선어말어미들과의 결합은 다루지 않는다.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질 과에서 제시되는 본문 내용에 따라 적절히 제시하기로 한다. 또 기존 교재에서 이 종결어미를 17과에서 다루었다면, 개선 방안에서는 13과에 다루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한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안에서 ‘해요체’를 가장 먼저 제시하도록 한 것과 일치하다. 표에서는 간단한 예문으로 해당 문법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연습문제에서는 이 문법을 활용한 연습을 기계적인 단순 연습과 유의미적 연습을 제시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을 확실히 습득할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1-17] “대우표현 익히기”

<표52> ‘-ㅂ니다/습니다’의 교재 개선안

	기존 교재	개선안
항목	-ㅂ니다/습니다 [1-13]	-ㅂ니다/습니다 [1-17]
설명	<p>☞ 설명: ‘-ㅂ니다/-습니다’는 서술을 나타내고 청자를 높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p> <p>☞ 결합: (1) 받침이 없는 용언(받침 ‘ㄹ’포함)이나 ‘-(으)시-’ + ‘-ㅂ니다’ (2) 받침 있는 용언(받침 ‘ㄹ’제외)이나 ‘-았-/-었-/-였-, -겠-’+ ‘-습니다’</p>	<p>☞ 설명: ‘-ㅂ니다/-습니다’는 격식체이며 청자를 최고로 높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술형 종결어미이다.</p> <p>☞ 결합: (1)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받침 ‘ㄹ’포함)이나 ‘-(으)시-’, ‘이다’ + ‘-ㅂ니다’ 예문 : ‘자-’ + ‘-ㅂ니다’→잡니다. ‘놀-’ + ‘-ㅂ니다’→놀입니다. ‘-(으)시-’+ ‘-ㅂ니다’→-(으)십니다. ‘이-’ + ‘-ㅂ니다’→입니다. (2)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받침 ‘ㄹ’제외)이나, ‘-았-/-었-/-였-, -겠-’ + ‘-습니다’ 예문 : ‘먹-’+ ‘-습니다’→먹습니다. ‘좋-’+ ‘-습니다’→좋습니다. ‘-았-/-었-/-였-, -겠-’ + ‘-습니다’ → -았습니다. -었습니다 -였습니다, -겠습니다. ☞ 의문형은 서술형에서 ‘-다’를 ‘-까’로 바꾸면 되며, 활용방식은 ‘-ㅂ니다/ -습니다’의 활용과 같다. 예문 : -ㅂ니까/ -습니까</p>
예문	<p>- 반갑습니다. - 맞습니다.</p>	

‘-습니다/습니까’는 기존 교재에서는 의문형으로 ‘-니까/습니까’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입니다.’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앞서 교과서 분석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습니다/습니까’의 활용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두 각각 나누어 제시하지 않고, ‘-니까/습니까’와 ‘-입니까/입니다’를 모두 ‘-습니다/습니까’의 활용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상 북경대학교에서 간행한 초급 한국어 교재를 기준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교재 개선 방안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제시된 대우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우표현 교수 지도안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구체적인 교수 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 지도안에 응용할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형태소는 3장의 교재 분석 결과와 4장의 오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선택하였다.


3장의 교재 분석을 보면 학습자들이 제일 많은 학습정보를 얻게 되는 교재에도 제시한 대우표현 관련 형태소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예문이 없거나 적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어려운 만큼 학습자들은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습득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교재의 부족함은 교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며,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오류도 줄어들 것이다. 4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종결어미의 사용양상을 조사하고 오류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학습자들은 교과서

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하십시오체’보다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발화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는 청자대우를 실현하는 종결어미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객체대우의 실현이 많았다. 주체대우의 선어말 어미 ‘-(으)시-’의 활용은 대우표현의 체계 중에서 오류가 가장 적었다. 이에 교수 지도안으로 활용할 대우표현의 항목을 종결어미로 정하였다.

또 앞 절의 교재 개선안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먼저 가르칠 대우표현의 문법형태소로 청자대우의 ‘해요체’ 종결어미를 제안하였다. 즉 기존 교재에서는 첫 한국어 수업에서 ‘안녕하십니까?’를 가르쳤다면, 개선안에서는 ‘안녕하세요?’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수업에서 기존 교재대로라면 ‘-디니까/-습니까, -디니다/-습니다’를 가르쳐야 하지만,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세요/-으세요’를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일상에서 들리는 청자대우의 종결어미는 ‘해요체’이지 ‘하십시오체’가 아니다. 중국인 학습자들도 자국에서 한국어를 주로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을 통하여 듣게 되는데, 현대사회 소재의 영상물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계도 ‘해요체’이다.

이상의 여러 점들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 제시할 교수 지도안의 대우표현의 항목으로 ‘-(으)세요’를 선택하였다. ‘-(으)세요’는 한국어의 첫 “대우표현 익히기” 수업에서 가르치는 문법항목일 것이며, 학습자들은 초급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교사의 언어는 짧고 간단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반복하여 들려주어야 한다. 아래 ‘-(으)세요’에 대한 교수 지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표53> ‘-(으)세요’의 교수 지도안

문형	V/N-(으)세요			
학습 목표	‘V/N-(으)세요’를 사용해 상위자의 청자에게 명령을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	학습 자료	시간(분)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나누기 교사 : 안녕하세요. - 교사 : 여러분 오늘 기분 어때세요? 좋아요? 좋으면 활짝, 웃어보세요. 웃어주세요. 나빠요? 안 좋아요? 왜 나빠요? 얘기 해 주세요. 얘기 하고나서 웃으세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 학생들의 이야기 듣기 		50분 수업에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 ▪ 이야기 내용 중 학습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반복 말하기
제시 (presentation)	<p><의미제시></p>  <p>-교사 : 어린이들이 과일 가게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네, 과일을 사고 있어요. 과일 살 때 뭐라고 말하죠?</p> <p>(학생들 대답) 네, “사과 주세요!”, 감 줘요. 사과 사요. 포도 사겠어요.</p>	실제 수업시에는 PPT를 이용	50분 수업에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으로 상황 설명하기 ▪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익숙해지도록 반복 말하기



-교사 : 이분들 뭐하세요?
네, “식사하세요.”
밥을 드시고 있어요.
밥을 먹어요. 식사 해요.



-교사 :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설날이에요. 설요.
절해요. 인사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태제시> ‘-(으)세요’ 판서

-교사 : 다른 사람에게 높임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바꿔 말해 봅시다.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가며 올바른
형태 판서)

주다 - 주세요; 하다 - 하세요
생각나다 - 생각나세요?
보다 - 보세요.
가다 - 가세요.
받다 - 받으세요.
앉다 - 앉으세요.
웃다 - 웃으세요.

- ‘-(으)세요’ 형태
제시한 뒤
색깔펜으로 앞의
용언에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를 표시하면서
판서한다.

- 명사와 대명사도
‘-(으)세요’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p>-교사 : 누구 + ‘-(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누구세요?’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네, ‘여보세요!’ 어머!, ‘과장님이세요?’ 박 선생님이세요? 대표님이세요? 현이 엄마세요?</p>			
<p>연습 (practice)</p>	<p><단순반복연습></p> <p>-교사 : 이제 문제 보세요.</p> <p>1. 말을 완성해 보세요. 1)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언제 [오다+(으)세요]? 2)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요. 엄마, 장난감 [사주다+(으)세요]. 3) 학생이 선생님께 말해요. 저 친구는 성격이 [좋다+(으)세요]. 4) 아이가 엄마에게 선생님을 소개해요. 엄마,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다+(으)세요]. 5) 의사선생님이 물어요. 할머니, 여기 [아프다+(으)세요?] 6) 가이드가 여행객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념 사진 [찍다+(으)세요].</p> <p>2. 이야기 해 보세요. 상황 -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 몰라요. 전화 받아 보세요. 학생 : 여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형님 이세요? (과장님, 이사님, 김 선생님, 대표님)</p>	<p>PPT & 판서</p>	<p>50분 수업에 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인식하게 판서를 해준다. ▪ 학생들이 화자와 청자의 대비 속에서 ‘-(으)세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으)세요’형태를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질문, 대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시간 제공.

	<p><유의미적 연습></p> <p>3. 가족사진을 가지고 가족 소개하기</p> <p>교사 :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에요? 학생들 : 가족사진이요./사진이요. 사진입니다. 교사 : 네, 가족사진이에요. (사진 속 인물들을 가르키며 이야기 하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학생들 : 어머니. 선생님 엄마 같아요. 선생님 언니요. -교사 : 저의 어머니세요. 저의 어머니도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학생들 : 오빠 같아요. 남동생 같아요. 삼촌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교사 : 저의 삼촌이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교사 : 여러분도 사진 가져 오셨지요? 두 사람씩 서로 소개해 보세요.</p> <p>(짝 활동 중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거나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판서하고 활동이 끝난 뒤 함께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 활동을 하는 동안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지도
<p>생성 (product)</p>	<p>-교사 : 모두 노트를 펼쳐 주세요. 짝꿍과 가족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 취미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세요.</p> <p>학생1 : 이분은 누구세요. 학생2 : 제 언니세요. 간호사세요. 학생1 : 예쁘시네요. 언니 분 운동 좋아하세요? 학생2 : 네, 테니스를 좋아해요. 학생1 : 저도 테니스 좋아해요. 학생2 : 그럼, 시간 있을 때 테니스 치러 오세요. 노트에 '누구세요, 언니세요,</p>	<p>PPT & 판서</p>	<p>50분 수업에 1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활동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로 예문을 보여준다. ▪ 교실을 돌아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유도한다.

	<p>간호사세요, 좋아하세요, 오세요.’ 등을 적어 보세요.</p> <p>학생들 활동 -교사 : 이제 정리 할게요. 방금 노트에 적었어요? 발표해 볼가요?</p> <p>* 학생들 발표 들으며 내용 판서하기 * 발표 내용 중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판서한 단어, 표현 함께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하는 내용 중 목표 문법 관련 부분을 판서하고 같이 읽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정리	<p>교사 : 좋아요. 잘 했어요. 오늘 높임 표현 배웠어요. - 과일 사리가요. 이젠 혼자 살 수 있어요. 사장님, 사과 주세요. 배 주세요. 굴 주세요. - 전화할 때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물어 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어디세요? - 주변사람 소개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세요. 회사 과장님이세요. - 취미를 물어 볼 수도 있어요. 운동 좋아하세요? 김치 좋아하세요? 좋아요, 잘 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p>	PPT	50분 수업에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답을 유도하면서 요약, 정리

이상에서 초급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으)세요’의 교수-지도안을 작성하여 보았다. 위의 지도안에서 보시면 도입부분에서부터 사용하는 표현들이 매우 간단하다. 처음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또 표현방식도 중국어와 너무 달라, 수업시간에는 한국어로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에 늘 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수업은 첫 도입부터 학습자들이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의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재의 제시에서와 수업의 진행을 모두 중국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자습의 편의성을 위하여 교재는 중국어로 설명하되 교수-학습 과정은 되도록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학습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짧은 언어, 반복 제시, 간단한 어휘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또 온전히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초급학습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것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입력 → 중국어로 번역 → 한국어로 송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왜냐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부터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학습하였으며, 표현을 할 때에는 중국어로 어떤 발화를 생각해 놓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화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급과정에서부터 본고에서 제시된 교수지도안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꼭 번역하는 과정 없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오류를 줄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제일 중요한 학습도구인 교재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으며, 또 대우표현의 실현요소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더 잘 습득하고 발화과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안해 보았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학습하면서 범하는 오류들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대우표현의 실현방법을 알아야 했으며,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학습하였는지도, 또 어떤 오류들을 범하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의 용어사용과 실현방법을 대조 분석하였다. 다음, 중국의 대학교들에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지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교재에서 대우표현을 실현하는 항목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제시하고 설명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다음,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대우표현의 사용 양상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재에서 대우표현의 실현항목들의 제시순서와 설명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런 대우 항목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자 ‘-(으)세요’를 실례로 교수-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대우표현을 잘 학습하게 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실현할 때 나타나는 오류와 이 오류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에의 용어를 살펴보고, 두 언어의 대우표현이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대우표현을 발화 참여자들의

사회적인 위치의 정립을 염두에 두고 그들 사이의 상하 관계, 친소 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표현을 골라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대우표현의 용어 사용에서 한국어는 존대, 평대, 하대의 삼분 체계로 실현되지만, 중국어는 평대와 존대의 실현만 있을 뿐 하대는 존재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 한국어의 대우표현은 주로 문법 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되지만 중국어의 대우표현은 어휘 형태소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중국에서는 북경대학교의 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교재에서는 아주 많은 양의 대우표현들을 제시하였으나 설명과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들이 대우표현을 실현하면서 혼동을 줄 수 있으며, 불확실한 습득과 함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대우표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들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휘오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결어미 오류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어말어미의 오류와 조사 오류가 많았다. 즉 객체대우의 오류가 가장 많았고 청자대우, 주체대우의 순이었다. 또 상황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해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표현 실현 양상과 중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분석 및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오류양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우표현의 실현을 교수-지도안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도 목표어와 모국어의 대비에서, 또 학습 정보를 얻는 교재에서의 제시내용과 설명방법에서, 또 학습자의 습득한 양에 따라 다양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런 오류들을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의 도구로부터 이런 오류의 원인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꼭 좋은 학습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교재와 교수에 대한 개선으로 학습자들의 대우표현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목표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어 교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서울대 한국어』,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1-1~2-2』, 연세대학교 대학
출판문화원.
李先汉 외(2008), 『韩国语1~4』, 民族出版社.
奎龙华(2007), 『标准韩国语』, 延边大学出版社.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편찬위원회(2012), 『중앙한국어4』, 중앙대학교.

2. 단행본

- 김영금(2003),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법 연구」, 『우리 民族語의 研
究와 傳播』, 역락.
김종훈(1984), 「國語 敬語法의 形態」, 『國語敬語法研究』, 集文堂.
김태엽(2007), 『한국어 대우법』, 역락.
국립국어원(2005), 「높임 표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
케이션북스.
남기심·고영근(1998),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박영순(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서울대학교 외 공편(2011),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1,2』, 아카넷.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
화사

- 성기철(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 교육』, 글누림.
-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Ⅱ』, 태학사.
-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Ⅲ』, 태학사.
- 우인혜·라혜민(2004), 「존대법」, 『외국인도 쉬운 한국어 문법(外國人簡單易懂的韓國語語法)』,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2), 「높임 표현」,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4), 「높임 표현」,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 이영택(2003), 「높임 표현」, 『학교문법의 이해』, 형설출판사.
- 이운하((2001), 『現代 國語의 待遇法 研究』, 역락.
- 이익섭, 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복(2008),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 임호빈·홍경표·장숙인 공저(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최신개정판.
- 임지룡 외(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최석재(2008), 『국어 대우법 체계의 정보화 연구』, 박이정.
- 최현배(1937), 「월의 조각의 서로 맞음」, 『우리말본』, 정음사.
- 이관규(1999), 「높임 표현」, 『학교 문법론』, 월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사.
- 한재영·박지영·현운호·권순희·박기영·이선웅(2008), 「대우법」, 『한국어문법교육』, 태학사.
- 허봉자(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박이정.

3. 논문

- 강영석(1987), 「國語 敬語法의 本質的 意味」,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1-54.
- 기 봉(2011),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2002),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125-147.
- 김 옥(2011), 「한·중 완곡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불안과 문화적응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2005), 「외국인 학습자의 경어법 이해 및 사용 양상 연구: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청룡(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우어 대조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엽(2005), 「현대 국어의 대우법 체계」,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1-20.
- 고석주·김미옥·김제열·서상규·정희정·한송화(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연세국학총서 38, 한국문화사.
- 고영근(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 66-91.
- 남기심(1998), 「한국인의 의식과 예절문화」, 『인문과학』 71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21-146.
- 마준정(2008),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지도 방안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1995), 「상대높임법의 사회언어학」, 『어문논집』 34, 안암어문학회 549-570.
- 박지순(2014), 「한국어 상대높임법 실현의 영향 요인 연구」, 『새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학회, 289-324.
- 裴圭範·周玉波(200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대우법 교육현황과 과제」, 『언어학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85-99.
- 범신성(20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사용 실태 및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자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기철(1970), 「國語待遇法研究」, 『論文集』 4, 충북대학교, 35-58..
- 성기철(1985), 「現代國語待遇法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기철(1991), 「국어 敬語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1, 국립국어연구원 2-22..
- 성기철(1996), 「현대 한국어 대우법의 특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87-106.
- 손정원(2012), 「한중 경어법의 비교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학성(2000),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영희(2010), 「국어 높임법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39-259.
- 여홍초(2011), 「한중 경어법의 비교연구」, 호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정(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존대법 교육 - 담화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185-208.
- 왕녕박(2010), 「韓·中 待遇法 對照 研究」,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한림(2011), 「韓中 경어법의 비교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현풍(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흔동(2012), 「한국어와 중국어 경어법 대조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패강(2013),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안 연구 : 한·중 경어법을 비교하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홍예(2009), 「한국어와 중국어 경어법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효영(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상대경어법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용선(2006),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국어학』 32, 국어학회, 321-376.
- 윤석민(2013), 「어휘를 통해 본 한국인과 중국인의 의식 비교 : 한국어 직시표현을 중심으로」, 『한중경제문화연구』 1, 한중경제문화학회, 35-54.
- 이규창(1991), 「現代 國語 尊待法 研究」, 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기갑(1997), 「대우법 개념체계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5, 한국사회언어학회, 645-669.
- 이명화(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와 지칭어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복(1984), 「국어의 상대 존대법 연구」, 『배달말』 9, 배달말학회, 1-30.
- 이승녕(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7, 진단학회, 307-364. .
- 이용주(1991), 「한국어 대우법과 그 교육(1)」, 『先淸語文』 19(1), 서울

- 대학교 국어교육과, 1-12.
- 이정복(1999),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3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91-121.
- 이정복(2006),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국어학회, 407-448.
- 이정복(2011),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기능」,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25-53.
- 이진진(2014), 「한·중 경어법의 대조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2006),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우법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509-527.
- 이호신(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동훈(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287-320.
- 장맹번(2013), 「한·중 경어법의 대조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윤(1994), 「現代 國語 敬語法의 二元的 分析」, 『어학연구』 4, 전주대학교 어학연구소, 191-208.
- 조남호(2006),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377-405.
- 조준학, 박남식, 장석진, 이정민(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 언어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학연구』 17(2),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167-197.
- 채영주(2009), 「요청 대화에 나타난 공손 표현 사용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석재(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397-432.
- 풍진동(2011), 「한·중 경어표현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2007), 「中韓敬語表現對比研究」, 『동아시아문화연구』 41,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06-335.
- 허봉자(2007),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35, 이중언어학회, 361-383.
- 후문옥(2003),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외국 문헌

- 李晓明·郝君峰·陈冰冰(2009), 『韩国语能力考试语法大纲(高級)』,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崔文婷 (2010), 『韩中敬语法对比研究』, 延边大学 亚非语言文学 硕士学位论文.
- 崔文婷 (2011), 「韩国语敬语表现手段」, 『考试周刊』 88, 渭南师范学院外国语学院.
- 郑春梅 (2009), 「浅谈韩国语敬语的用法」, 『常州信息职业技术学院学报』 8(6), 常州信息职业技术学院, 73-75.
- 全明姬 (2010), 「韩国语敬语教学法研究」, 『苏州大学学报』 4, 苏州大学, 155-158.
- 孙 皓 (2011), 「浅析韩国语的敬语法」, 『剑南文学』, 长春师范学院外语学院 123.

- 汤璇芷 (2011), 「韩国语中的敬语现象及其使用」, 『扬州大学』15(2), 扬州大学 124-128.
- 李 丹 (2013), 「韩国敬语词汇与礼文化的“荣辱与共”」, 『牡丹江师范学院学报』03, 中南民族大学外语学院.
- 王书明 외 (2010), 「浅谈韩国语的敬语现象及运用」, 『科技信息』18, 渭南师范学院, 533.
- 姜春玉 (2014), 「浅谈韩国语中的敬语」, 『辽宁师专学报』93, 锦州师范高等专科学校, 27-28.
- 宋开春 (2012), 「韩国语的敬语表达研究」, 『剑南文学』10, 江苏农林职业技术学院, 159-161.
- 朴锦海 (2007), 「汉韩敬语对比研究」,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 饶安芳 (2013), 「巴赫金对话理论视角下汉语敬语的交互主观性」, 西南大学 硕士学位论文.
- 张殿典 (2007), 「从汉语敬语看民俗文化」, 『文化学刊』6, 辽宁师范大学93-101.
- 仁 婕 (2014), 「韩语和汉语敬语法的对比」, 『中国科学创新导刊』.
- 曾小燕 (2013), 「浅析汉语敬语的界定」, 『现代语文』.
- 赛照芹 (2008), 「汉语敬语的初步研究」, 天津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徐 辉 (2012), 「现代汉语敬语的分类」, 『现代交际』338, 北华大学公共外语教育学院, 56.
- 张国强 (2009), 「韩国语教育的文化教育问题研究」, 辽宁省教育科学计划课题.
- 姚 娜 (2014), 「中韩敬语的概念介绍与分类对比」, 『语文学刊』7, 菏泽学院外语系, 15-17.
- 诸同镐 (2004), 「汉语韩语中敬语和表尊敬代词的比较」, 『陕西师范

大学报』33, 陕西师范大学 国际汉语学院, 357-358.

崔文婷 (2010), 「韩中敬语法对比研究」,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金青龙 (2007), 「韩国语敬语法词汇现状研究小议」, 中央民族大学 硕士学位论文.

ABSTRACT

To target the Chinese learners Korean expression
of treatment Improvement on education

Lee Yeon-h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treatment method is advanced than any language, but also from the Korean treatment performance is not normal. So learning Korean, means must learn treatment method. Korean and Chinese language i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Korean grammar form element is developed, and Korean is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vocabulary and grammar form element. So many Chinese are learning Korean error more than learning other languages . This paper is to reduce the errors in Chinese in the process of learning Korean problem, and to communicate better with the south Koreans , first analysis of Chinese colleges and universities use the teaching material, then, to learn Korean students establish investigation, find out Chinese students prone to fault whe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analysis of the erro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bove two, puts forward improvement scheme of common mistakes.

Chapter 1, Mainly explain the research purpose, research method and review the former research. The paper's aim is to reduce the errors Chinese students make during the study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eatment method of Korean and give some available teaching method.

Chapter 2, the comparison of the words of the Treatment method between Chinese and Korean, the analysis of Treatment method of both languages in the everyday's use and finally find out the common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languages.

Chapter 3, analysis of China's colleges and universities use Korean textbooks of treatment in the tip shape element method and the method.

Chapter 4, through the study of Korean Chinese students establish to investigation, and to check what is the Chinese people in the use of Korean error occurs, and exploration, the author analyzes the reasons of the error.

Chapter 5, reflect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and research in the chapter, Korean textbooks for Chinese colleges and universities use improvement scheme is put forward.

Chapter 6, the content of the above chapters chapter sorts through other forms, and briefly expounds the research results

Key words : the Korean Treatment Method. Chinese students. The error analysis. Improvement plan.

● 다음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해 주세요(어떤 말을 사용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1. 来了? _____.
2. 吃吧。_____.
3. 睡吧。_____.
4. 我帶你去。_____.
5. 爷爷, 爸爸在吃饭。_____.

● 다음 상황을 보고 문장을 완성 해 주세요.

상황1. 당신이 할아버지께 식사하라고 말할 때.

할아버지, _____.

상황2. 선생님이 당신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릴 때.

어머니, 선생님_____.

상황3. 엄마가 당신에게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영희야, 가서_____.

상황4. 당신이 할머니한테 갔는데 할머니가 없을 때.

엄마, 할머니_____.

상황5. 친구 현수에게 책을 빌릴 때.

현수_____.

상황6. 학회에서 당신은 사회자입니다. 친한 후배인 수진이가 발표할 차례일 때.

다음으로는 김수진_____.

상황7. 학회가 끝나고 회식할 때 당신은 수진이가 고생했다고 말할 때.

수진아 _____.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북경대학교 교재 제1권 17과에서 제시된 대우법체계

한국어의敬语法

한국어의敬语法很发达, 主要是通过词汇和语法形式来表现, 包括主体敬语反、客体敬语法、听者敬语法三种。

(1)主体敬语法: 对句子的主体表示尊敬, 主要通过“-시-/-으시-”来表现, “-시-/-으시-”常与助词“께서”搭配使用。

(2)客体敬语法: 对客体及动作涉及的间接对象表示尊敬, 主要通过助词“께”或“드리다”、“모시다”、“뵙다”等词汇来表现。

(3)听者敬语法: 话者对听者表示尊敬, 主要通过终结语尾来表现, 终结语尾根据话者对听者的尊敬态度可分为“합쇼”体、“해요”体、“하오”体、“하게”体、“해라”体、“해”体等六个等级。

① “합쇼”体和“해요”体:

二者皆用于对待长者、上级或其他需要表示尊敬的场合, 其中“합쇼”体为格式体, 多用于比较正式的场合, “해요”体为非格式体, 一般带有亲切的语气。

② “하오”体和“하게”体:

二者均为格式体, 用于年龄较大的平辈之间, 也可用于长者对晚辈表示亲切或客气的场合。

③ “해라”体和“해”体:

“해라”体为格式体, “해”体为非格式体。二者用于不需要客气的场合, 如大人对待小孩, 或彼此关系较近的平辈之间以及小孩与小孩之间等。